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教育學碩士 學位論文

생태학적 접근에 따른 그릿(Grit)의 영향요인 탐색
- 유기체, 가정, 학습환경을 중심으로 -
Exploring Factors Influencing 'Grit' by Ecological Approach
-Focusing on organism, home and learning environment-

2019 年

蔚山大學校 教育大學院

相談教育專攻

趙 命 秀

생태학적 접근에 따른 그릿(Grit)의 영향요인 탐색
- 유기체, 가정, 학습환경을 중심으로 -
Exploring Factors Influencing 'Grit' by Ecological Approach
-Focusing on organism, home and learning environment-

指導教授 崔 賢 柱

이 論文을 教育學碩士(相談教育)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19年 1月

蔚山大學校 教育大學院

相談教育專攻

趙 命 秀

趙命秀의 教育學碩士(相談教育)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정 중 원 (印)

審査委員 최 현 주 (印)

審査委員 조 수 현 (印)

蔚山大學校 教育大學院

2019 年 1 月

국문 초록

인간은 환경과 맥락적으로 상호영향을 주고받으며 발달, 성장한다는 Bronfenbrenner가 제안한 인간발달의 생태학적 체계이론(The Ecological System of Human Development Theory)의 관점에서 역동적 시기에 있는 청소년 유기체를 중심으로 태어날 때 부여 받은 성격5요인의 신경증(Neuroticism), 외향성(Extroversion), 개방성(Openness), 친화성(Agreeableness), 성실성(Conscientiousness)을 포함하여 미시체계(microsystem), 중간체계(mesosystem), 외체계(exosystem), 거시체계(macrosystem)로 분류하고 있는 생태학적 체계이론의 미시체계 환경에 속하는 가정의 환경적 변인이 되는 부모-자녀관계 요인, 가정의 경제적 요인, 문화적 요인, 부모의 양육태도 요인 및 학습환경의 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풍토, 학급풍토, 또래관계의 질 등을 중심으로 그릿(Grit)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그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인다고 할 수 있다.

환경이나 신체적 조건 등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학생은 초기에 정한 목표를 쉽게 포기하는 반면 어떤 학생은 기어이 목표를 이루어 내는데 대한 차이점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라는 의문에서부터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초기에 정한 목표를 끝까지 이루어 낼 수 있는 능력은 재능이나 지능이 아니라 그릿(Grit)이 목표를 이루어 내게 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따라 그릿은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그릿이 재능이나 지능 보다 더 중요한 성공의 변인으로 인지되고 있음은 선행연구들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미국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성공의 원인은 특별한 재능이나 지능(IQ) 때문이 아니라 그릿(Grit)이 높았을 뿐이었다는 것이다.

비인지적 요인인 그릿의 구성요인으로서 능력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노력하기에 따라 변화 성장할 수 있다는 신념(Growth mindset), 실패를 겪었음에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회복탄력성(Resilience), 외부적으로 동기가 주어지지 피동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여 자발적으로 목표를 성취하려는 내재동기(Intrinsic Motivation),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이루려는 끈기(Tenacity)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그릿은 마라톤 경기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다. 목표를 향해 체력의 한계에도 굴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는 정신력이 그릿과 유사한 면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지능과 재능 이상으로 성공의 예측 변인이 되는 그릿을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체계환경의 이론적 틀 안에서 그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도출(deduction)하여 울산광역시 교육청 관내 남, 여 고등학교 1학년 학생 600여명을 대상으로 리커트(Likert)척도에 의한 자기보고형 설문을 실시하였다.

첫째, 유기체 변인으로서 성격5요인의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 등은 청소년의 그릿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가정의 환경적 변인이 되는 부모-자녀관계, 경제적 요인, 가족문화, 부모-양육태도 등은 청소년의 그릿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학습의 환경적 변인 중 학교풍토, 학급풍토, 또래관계는 청소년의 그릿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상과 같이 제기된 문제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된 자기보고형 설문은 먼저 SPSS WIN 21.0에 의한 연구대상 학생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약을 위한 빈도, 백분율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각 요인별 신뢰도 측정을 위한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으며 주요 변인에 대한 상관관계의 정도를 확인하게 되었다. 또한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인 성별(male • female) 및 가정의 월 소득, 부모의 최종학력, 학교성적에 따른 그릇의 차이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T*검증, *F*검증,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유기체 변인과 가정의 환경적 변인, 학습환경의 변인은 그릇의 성장과 실제적으로 어떻게 관련되는지 알아보기 위한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 첫째, 태어나면서부터 부여 받은 유기체 변인의 성격5요인 중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 등은 그릇과 정적 상관관계가 성립하였으며 신경증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둘째, 가정의 환경적 변인의 하위 요인인 부모-자녀관계, 경제적 요인 가족-문화, 부모-양육태도 등은 그릇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 부모-자녀관계 및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그릇의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 셋째, 학습환경 변인의 하위 요인 중 학교풍토, 학급풍토 및 또래관계의 질은 그릇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성립된다. 자율적이고 교육적인 학교풍토와 자발성과 친밀성이 높은 학급풍토, 긍정적인 또래관계의 질은 그릇의 척도를 한층 높게 유도한다.

역동적 시기에 있는 청소년 자신, 즉 유기체는 성별, 나이, 기질 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중 본 연구에 포함된 Costa & McCrea가 제시한 성격5요인은 그릇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성실성은 그릇과 높은 정적상관을 보여줌으로써 성실성이 그릇과 유사한 면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신경증의 경우는 그릇과 부적상관관계를 보여줌으로써 그릇이 미래의 성공을 예측하는 변인이 된다고 보았을 때 신경증은 성공을 저해하는, 즉 그릇을 낮게 유지시키는 성격의 일부가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체계이론의 미시체계에 속하는 가정의 환경적 변인과 그릇과의 상관관계는 부모-자녀관계 및 가정의 경제적 요인, 문화적 요인 등이 비교적 그릇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으며 부모의 양육태도는 그릇과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으로써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공에도 중요한 교육적 요인이 됨을 알 수 있었다.

학습환경 변인이 되는 학교풍토, 학급풍토 및 또래관계의 질 등도 그릇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서 학교생활의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바람직한 또래관계는 그릇과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서 대상 학생들이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는 또래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다시 한 번 새롭게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 외에도 그동안 수행된 그릇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독립변인 및 매개 변인에 국한되었다고 한다면 본 연구는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격5요인 및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체계환경의 미시체계 중 가정의 환경적 변인이 되는 부모-자녀관계 요인, 경제적 요인, 문화적 요인, 부모의 양육태도 요인과 학습환경 변인으로서 학교풍토, 학급풍토, 또래관계의 질 등이 그릇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여 독립변인으로 상정하였으며 다양한 생태학적 체계환경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측되는 그릇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그 상관관계를 탐색해보려고 했다는 것에 본 연구의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생태학적 체계이론, 그릇, 성격5요인, 가정환경, 또래관계, 학습환경

목 차

국문 초록	i
표 목차	vi
그림 목차	vi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3
3. 용어의 정의	4
II. 이론적 배경	5
1. 생태학적 체계이론	5
가. 생태학적 체계이론의 개념	5
2. 그릿(Grit)의 개념	9
3. 유기체 변인과 성격 5 요인	13
가. 유기체 변인의 개념	13
나. 성격 5 요인의 개념	13
다. 성격 5 요인과 그릿의 관계	15
4. 가정의 환경적 변인과 그릿의 관계	17
가. 가정의 환경적 변인	17
1) 부모-자녀관계 요인	18
2) 경제적 요인	19
3) 문화적 요인	20
4) 부모의 양육태도 요인	21
5. 학습환경 변인과 그릿의 관계	22
가. 학습환경의 개념	22
1) 학교풍토	23
2) 학급풍토	24
3) 청소년기 또래관계	25
가) 청소년의 개념	25
나) 또래관계의 개념	26
III. 연구방법	26
1. 연구대상	26
2. 대상자 선정에 대한 설명	26
3. 측정도구	27

가. 그릿(Grit)척도	27
나. 성격 5 요인 척도	27
다. 부모-자녀 관계 척도	28
라. 가족의 문화적 척도	28
마. 부모의 양육태도 척도	28
바. 또래관계의 질 척도	28
사. 학교풍토 척도	29
아. 학급풍토 척도	29
자.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문항	29
4. 분석방법	30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0
2. 연구대상자 부모의 일반적특성	31
3.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분석	32
4.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분석	33-34
5. 집단 별 그릿의 차이 검증	35
가. 성별에 따른 그릿의 차이 검증	35
나. 가정의 월소득에 따른 그릿의 차이 검증	35
다. 아버지의 최종학력에 따른 그릿의 차이 검증	35
라. 어머니의 최종학력에 따른 그릿의 차이 검증	35
마. 학교성적에 따른 그릿의 차이 검증	36
6. 유기체, 가정, 학습환경 변인이 그릿에 미치는 영향	36
가. 유기체환경 변인이 그릿에 미치는 영향	36
나. 가정환경 변인이 그릿에 미치는 영향	37
다. 학습환경 변인이 그릿에 미치는 영향	37

V. 논의

1. 유기체 환경 변인 중 성격 5 요인과 그릿	38
2. 가정환경 변인 중 부모-자녀관계 및 가족문화, 부모의 양육태도와 그릿	39
3. 학습환경 변인의 학교풍토와 그릿	39
4. 학습환경 변인의 학급풍토와 그릿	40
5. 학습환경 변인의 또래관계와 그릿	40
6.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그릿의 관계	41
가. 성별에 따른 그릿의 차이 검증	41
나. 가정의 월소득에 따른 그릿의 차이 검증	41
다. 부모의 최종학력에 따른 그릿의 차이 검증	41
라. 학교 성적에 따른 그릿의 차이 검증	41

7. 유기체, 가정, 학습환경 변인의 개별요인이 그것에 미치는 영향	42
가. 유기체환경 변인이 그것에 미치는 영향	42
나. 가정환경 변인이 그것에 미치는 영향	42
다. 학습환경 변인이 그것에 미치는 영향	42
VI.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43
1. 연구의 제한점	43
2.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44
참고문헌	45
부 록	59
ABSTRACT	73

표 목차

<표 II-1> 그릿과 유사한 개념들.....	13
<표 II-2> 성격 5 요인의 하위 구성요소	14
<표 II-3> 부모의 양육방식 평가.....	22
<표 III-1> 조사대상 학교 및 학생 수.....	26
<표 III-2> 그릿(Grit)척도의 문항구성도와 신뢰도 관계(*역 채점 문항).....	27
<표 III-3> IPIP 하위영역 및 신뢰도 계수(*역 채점)	27
<표 III-4> 부모의 양육태도 척도의 문항구성도와 신뢰도 관계	28
<표 III-5> 또래관계 질 척도의 하위요인과 문항구성 및 신뢰도	29
<표 III-6> 학교풍토 척도의 문항구성도와 신뢰도 관계	29
<표 III-7> 학급풍토 척도의 문항구성도와 신뢰도 관계	29
<표 III-8>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문항 구성도.....	29
<표 III-9>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0
<표 III-10> 연구대상자 부모의 일반적 특성.....	31
<표 III-11> 주요변인 기술통계 분석결과.....	32
<표 III-12> 주요변인 상관관계 분석 결과.....	34
<표 III-13> 성별에 따른 그릿의 차이 검증.....	35
<표 III-14> 가정의 월소득에 따른 그릿의 차이 검증.....	35
<표 III-15> 아버지의 최종학력에 따른 그릿의 차이 검증.....	35
<표 III-16> 어머니의 최종학력에 따른 그릿의 차이 검증.....	36
<표 III-17> 학교성적에 따른 그릿의 차이 검증.....	36
<표 III-18> 유기체환경 변인 중 성격5요인이 그릿에 미치는 영향.....	37
<표 III-19> 가정환경 변인이 그릿에 미치는 영향.....	37
<표 III-20> 학습환경 변인이 그릿에 미치는 영향.....	38

그림 목차

[그림 I-1]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체계환경 중 미시체계 내의 연구범위.....	4
[그림 II-1]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체계이론의 개념모형도.....	9
[그림 II-2] 노력의 중요성.....	11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Bronfenbrenner(1979)는 그가 주장한 생태학적 체계이론에서 유기체, 즉 개인이 태어나면서부터 접하게 되는 생태학적 환경을 미시체계(microsystem), 중간체계(mesosystem), 외체계(exosystem), 거시체계(macrosystem)로 구분하고 유기체는 독립적으로 홀로 변화,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체계와 유기적으로 관계되어 상호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하였다(김숙향, 2017; 문수경, 2004).

근래에 빈번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비인지적 영역 중 타고난 재능과 지능(IQ)보다 중요하다고 인식되고 있는 그릿(Grit, Duckworth, 2017)은 유기체가 소속된 다양한 생태학적 체계환경간 상호작용의 영향으로 형성, 변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체계이론의 관점에서 울산지역 남, 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이 소속된 체계환경은 그릿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시체계를 중심으로 그 상관관계를 확인하려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고 하겠다.

연구의 대상자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상정한 것은 우리나라의 정규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대부분의 연령이 15~16세의 청소년기에 해당됨으로써 청소년기 학생들이 속한 생태학적 체계환경과 성공의 예측 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이수란, 2014) 그릿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는 대상 학생들의 미래를 어느정도 예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미국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분류하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성공한 원인은 대부분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이나 지능이 뛰어나서 아니라 비인지적 요인인 그릿이 높았다는 것을 확인한 연구가 있었다(Duckworth).

그릿(Grit)이란 장기적인 목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 포기할 줄 모르는 끈기, 인내, 투지라고 하며 그릿의 구성요인으로 첫째, 능력이란 고정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변화 성장할 수 있다는 성장 마인드(Growth Mindset). 둘째, 실패를 거울삼아 다시 일어서는 회복탄력성(Resilience), 셋째, 계획된 목표를 위해 어려운 과정을 쉽게 포기하지 않고 통제할 수 있는 자기조절력(Self-regulation), 넷째,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 외적 동기가 아니라 내적 동기, 즉 내재동기(Intrinsic Motivation). 다섯째, 어렵고 힘들지만 정한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기어이 이루어 내고 마는 투지, 끈기(Tenacity)등이라고 정의하였다(김주환, 2013; 박준수, 2017; 이수란, 2014; 이정림, 2015; 조수진, 2016; 한양숙, 2014; 하혜숙, 임효진, 황매향, 2017; Duckworth).

이처럼 그릿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바탕으로 그릿을 종속 변인으로 설정하고 그릿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유기체 환경 변인 중 성격5요인과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체계이론의 미시체계에 속하는 가정의 환경적 변인의 하위 요인 중 부모-자녀관계, 가정의 경제적 요인, 가정의 문화적 요인, 부모의 양육태도요인 및 학습환경 변인의 하위 요인이 되는 학교풍토, 학급풍토, 또래관계의 질 등을 독립 변인으로 설정하여 종속 변인으로서 그릿은 독립 변인의 영향에 따라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 그 상관관계를 연구함으로써 성공의 예측 변인이 되는 그릿을 높게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성격은 어린 시절에 발달하여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reud(1856~1939)에 의하면 인간은 7세 이전에 성격의 기본구조가 형성되어 이후에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며 성격 5요인 이론을 제시한 Costa와 McCrae(1988, 2002)는 대부분 개인의 성격변화는 30세 전, 후에 나타나며 그 이후에는 성격이 일관된 상태를 유지한다고 하였다. 한편 Erikson의 자

아정체감 발달이론에 따르면 ‘성장과정에서 문화적, 사회적 경험이 인격형성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여 청년기에도 인성(character)은 변할 수 있으며 인간발달은 일생을 통하여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과정이다’라고 보았다(정옥분, 2004). 이처럼 Costa와 McCrae가 30세 전, 후로 형성된 개인의 성격은 추후로는 대부분 변하지 않는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성격은 일생동안 계속 변화되는 것으로 선행연구자들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다. 특히 Soto와 그의 동료들(Soto, John, Gosling, & Potter, 2011)은 10대~60대의 다양한 연령층에 해당되는 약126만명을 대상으로 성격5요인 조사(Big Five Inventory)를 실시한 결과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성격의 평균수준¹⁾도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권석만, 2017).

생태학적 체계이론 중 미시체계에 속하는 가정의 환경적 변인은 유기체가 태어나면서 가장 근접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최초의 체계환경이 된다고 하였다(Bronfenbrenner). 이때부터 유기체는 부모-자녀관계의 영향에 따라 다양한 방향으로 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바람직한 부모-자녀관계는 유기체와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함으로써 그릇 또한 높은 상승효과를 나타내게 될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자율적, 성취지향적, 긍정적, 합리적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성공의 예측 변인이 되는 그릇 척도가 높게 형성될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조수진, 2014).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유기체 변인의 기질과 성격, 가정의 환경적 변인에 속하는 부모-자녀관계, 부모의 양육태도 및 당시의 사회문화, 교육적 상황 등 생태학적 체계환경은 유기체가 의도하든 하지 않든 기속(binding)될 수밖에 없는 불의도적(unintentional), 불가역적(irreversible)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Bronfenbrenner). 다만 긍정적인 체계 환경은 성장하는 유기체에게 안정적인 내적 작동모델을 보유하게 할 것이며, 반면에 그렇지 못한 경우는 불안정한 내적 작동모델을 가지도록 할 것이다. 이렇듯 유기체의 타고난 성격과 가정환경 등은 태어나면서부터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본능적, 생득적 환경이라고 정의하였다면 또래관계를 비롯한 학습환경 변인의 학교풍토와 학급풍토 등은 유기체가 처한 다양한 생태적 환경에 따라 변화가 가능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다(김지영, 2008; 정숙희, 2016; 한호순, 2016).

이처럼 미시체계에 속한 학습환경 변인의 하위요인인 학교풍토 및 학급풍토, 또래관계 등은 부모의 의지 및 유기체의 욕구에 의하여 어느정도 통제, 조절이 가능하다고 보아진다.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教)라는 고어(an old saying)가 의미하는 바는 학습환경(learning environment)의 중요함을 인식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의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재능과 지능을 뛰어넘는 성공의 예측변인이 되는 그릇은 장기적인 목표를 위한 굵힐 줄 모르는 열정과 투지라고 정의하였다(Duckworth). 또한 그릇과 유사한 의미로 의지(will)와 투지(fighting spirit), 끈기(tenacity), 회복탄력성(resilience) 등을 예로 들었다(김주환, 2013; 이수란, 2014; 하혜숙 외, 2017; 한양숙, 2014).

유기체의 생득적(congenital) 성격과 가정의 환경적 변인 등 생태학적 체계내에 종속된 유기체는 체계간 상호 다양한 상승작용의 영향을 받아 변화, 발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릇 또한 유기체의 성격형성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 초기의 의도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높은 척도로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그릇의 성장경로를 예상하고 유기체의 생태학적 체계환경과의 상관관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본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¹⁾ 연령에 따른 성격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의 방법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하나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개개인의 성격검사 점수의 평균수준이 변화하는 정도를 통해서 성격변화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평균수준 변화(mean-level change)라고 한다. 다른 하나는 집단내에서 개개인의 성격점수 위치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통해 성격변화를 설명하는 방법으로서 순위변화(rank-order change)라고 지칭한다. 권석만, 『현대성격심리학』 (서울: 학지사, 2017), p. 713.

다루어야 할 주제가 된다.

Duckworth와 그의 동료들은 그릿의 특성을 밝히기 위하여 나이를 통제하고 진행한 조사에서 교육수준에 따라 그릿척도(Original Grit Scale(Grit-O): Duckworth, 2007)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대학원 이상의 교육을 받은 고학력그룹의 척도가 가장 높게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들 연구자들은 대부분 그릿을 높게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장기적인 목표를 확실히 하였으며 이를 이루기 위하여 고등교육을 받거나 오랜 시간 공부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여 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릿이 성장하여 높게 표현되었을 수 있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Duckworth,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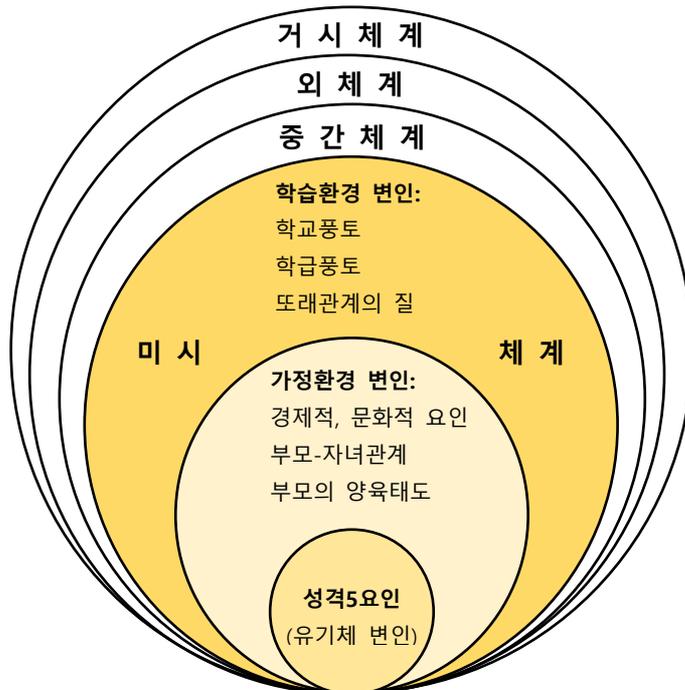
그렇지만 우리들 주변에는 불리한 환경과 신체적 장애 등으로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극복하고 이루려던 목표를 성취하여 성공을 한 사람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 어떤 경우는 신체적 장애가 오히려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자극제(stimulant)가 되었으며 열등한 환경 또한 그들을 더욱 분발하게 하는 동인(cause)으로 작용하였다. 이들에게는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재능이나 지능이 있었기보다 높은 그릿이 원인이었다는 것이 연구의 결과였다.

최근 연구자들은 그릿이 유전이 되는지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그릿 척도 중 관심의 지속성을 유지시켜주는 열정의 유전율이 20%, 어려운 과정을 인내로서 극복하는 끈기의 유전율은 30% 이내라는 것이었다(Duckworth). 나머지 50%는 성격 등 유전 외의 생태학적 체계에 속하는 환경의 영향으로 그릿 척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격5요인에 관한 선행연구(McCrae & Costa, 1987, 정영숙 외, 2014.)들의 결과에 의하면 성실성,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등은 그릿에 정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신경증과는 부적상관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 진다.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체계이론과 그릿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선행연구는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성격5요인과 그릿, 부모의 양육태도-그릿 등 그릿에 관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미루어 보면 본 연구의 대상자, 즉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울산광역시 교육청 관내 남, 여 고등학교1학년 학생들에게 있어 그릿에 가장 큰 변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생태학적 체계의 미시 체계에 해당되는 가정의 환경적 변인의 하위 요인인 부모-자녀관계, 가정의 경제적, 문화적 요인, 부모의 양육태도 등을 들 수 있겠으며 다음으로는 학습환경 변인 중 또래관계의 질과 학교풍토, 학급풍토 등이다. 특히 청소년기의 또래관계의 질은 성격5요인, 부모-자녀 관계, 가정의 경제적 요인, 문화적 요인, 부모의 양육태도, 학교풍토 학급풍토 등과 더불어 그릿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성립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2. 연구문제

울산시에 소재한 남, 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이 속한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체계환경 중 미시체계와 그릿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는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부 연구문제를 도출하였다.



[그림 1 - 1]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체계환경 중 미시체계 내의 연구범위

- 첫째, 유기체환경 변인으로서 성격 5요인 중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은 청소년의 그릿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둘째, 가정환경 변인의 부모-자녀관계, 경제적 요인, 가족문화,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그릿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셋째, 학습환경 변인 중 학교풍토, 학급풍토, 또래관계의 질은 청소년의 그릿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3. 용어의 정의

가. 생태학적 체계이론(ecological system theory)

Bronfenbrenner는 인간발달 연구에서 성장하는 유기체와 그 유기체가 실제 거주하고 성장 변화하는 환경 간의 일생동안 일어나는 상호작용과정에 역점을 두는 광범위한 접근법인 인간발달의 생태학 이론(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Theory)을 제안하였다. 그는 상호의존적, 동태적 겹 구조의 원심형을 구성하는 네 개의 주요한 생태학적 환경체계를 규정함으로써 인간에게 동시에 적용되는 환경을 개념화하였다. 이 겹 구조물에 적용된 개념적 용어는 미시체계(microsystem), 중간체계(mesosystem), 외체계(exosystem), 거시체계(macrosystem)이다(문수경, 2004; 이경면, 2003).

나. 그릿(Grit)

그릿은 장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열정과 집념 그리고 투지, 끈기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한다. 또한 그릿은 회복탄력성(김주환, 2013), 투지(이수란, 2014), 끈기(하혜숙 외, 2017) 등 다양한 해석으로 정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GRIT의 원어 속에 포함된 관심의 일관성과 노력의 꾸준함, 투지와 끈기 등으로 Duckworth가 정의한 뜻 그대로 해석하기로 한다.

다. 성격5요인(personality 5 factor)

성격5요인 이론은 Costa & McCrae(1992)에 의해서 집대성된 성격이론으로 심리학에서 경험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하여 정립되었다. 신경증(Neuroticism), 외향성(Extroversion), 개방성(Openness), 친화성(Agreeableness), 성실성(Conscientiousness)의 다섯 가지 요소가 있으며 현대 심리학계에서 가장 널리 인정받고 있는 성격이론으로 알려져 있다(한양숙, 2015).

라. 가정환경(family environment)

가정은 개인에게 안정적인 삶의 조건과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의 성격형성에 일차적인 역할을 하며 윤리적, 인습적, 사회적으로 승인된 관습과 규범습득의 동기를 제공한다. 그리고 윤리적, 관습적, 사회규범적으로 비용인(unacceptable)된 비행이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규제와 감독, 처벌을 통하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온전히 성장하도록 하는 역할기능을 함으로써 개인의 도덕적 가치 및 질서와 규범을 수용, 순응행위를 가능하게 한다(기광도, 이연길, 2002).

마. 학습환경(learning environment)

학습환경은 학습자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심리정서적 조건 및 사회문화적 상황 등에 영향을 미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하였다(김창민, 2013; 서다숨, 2014).

바. 또래관계(peer relationship)

또래는 나이와 발달의 수준이 비슷하며 일상적으로 상호작용을 함께 하는 대상을 말한다(김지혜, 2017; 이여미, 2014; 전제일, 천수혜, 2008). 또한 또래집단은 친근하고 동등한 지위를 가진 구성원들의 행동상의 발달성 수준이 비슷한 동배(同輩) 간 상호작용을 하는 비형식적이고 사회적 공감에 의한 결합이라고 정의하였다(Hartup, 1993, 정숙희, 2016).

II 이론적 배경

1. 생태학적 체계이론(ecological system theory)

가. 생태학적 체계이론의 개념

환경이란 ‘인간의 발달에 영향을 주거나 혹은 인간의 발달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되는 유기체 바깥의 사건이나 조건을 말한다’(Bronfenbrenner & Crouter, 1983).

Bronfenbrenner에 따르면 청소년의 발달은 결코 진공상태가 아닌 언제나 특정 환경 안에서 일어나며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표현된다.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는 것은 환경과의 밀접한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이는 다시 청소년의 성장과정에 환경이 주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김민, 김영인, 2008; 김숙향, 2017; 문수경, 2004; 반기완, 2015; 이정미, 2005).

생물학의 한 분야로 발전해 온 생태학은 최근 인간발달 과정에서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모든 학문분야에 적용되어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을 시도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김은미, 2015; 홍정미, 2009).

생태학은 인간이 어떻게 생물학적 환경과 다양한 형태로 상호작용하며 성장 발달해 가는지, 그리고 보다 큰 사회적 맥락의 어떤 측면이 개인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사회과학자들은 생물학에서의 정의와는 다르게 인간 생

태학 또는 사회생태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이정미, 2005).

인간생태학은 생물학적 유기체와 그 유기체를 형성하는 사회 물리적 환경체계 간에 존재하는 복잡하면서도 다차원적인 상호의존적 체계에 대해 연구한다(문수경, 2004; Hawley, 1995).

유기체와 외부 체계간의 상호작용이라는 개념은 생태학 이론의 핵심이며 인간의 생태학 이론은 사람들이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냐 보다는 체계내의 어떤 상황 조건에서 그와 같은 행동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연구의 주안점을 둔다(홍정미, 2009).

사회과학의 한 영역인 인간생태학(human ecology)은 세계1차대전 후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근본적으로 인간생태학은 생물학적 생태학(bio-ecology)으로 부터 영향을 받았으며 그와 관련된 다양한 개념들은 환경의 생태계로부터 얻었다고 볼 수 있다.

1950년대에 이르러서는 생태학은 사회과학 분야에 관심을 얻을 수 있었으며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인간의 다차원적 적응으로부터 초래되는 다양한 기능적인 상호의존성 연구에 역점을 두었다.

1960년 시기의 인간생태학적 해석은 사회의 제반(all sort of)현상에 대한 맥락적 분석(contextual analysis)을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당시 서구사회 심리학회 of 만능적(all-round) 심리활동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박명숙, 1999).

또한 그 시대의 생태학적 관점은 사회과학의 일환(as part)으로 가족문제에 확장되었으며 가족체계는 가족의 일상생활을 규정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환경체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생태학적인 체계접근’(ecological systems approach)이라는 학술적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게 되었다(Auerswald, 1968, 박명숙, 1999; 이정미, 2005).

생태체계이론을 정립하게 한 또 다른 이론, 즉 일반체계이론은 1930년대에 Von Bertalanffy에 의해서 형성되었다. 생물학자로서 Von Bertalanffy는 생물의 조직과 체계가 어떻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조절되는지를 설명하려고 했다.

일반체계이론은 체계내에서 그리고 체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갈래의 정보가 교환되는 방법과 관련된 모델을 정립하고 추상적인 체계에 대해 다차원적 시도를 함으로써 마침내 일반화를 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연구단계를 거치면서 결국 생태학은 일반체계론적 관점과 결합됨으로써 생태체계이론이 정립되었고 오늘날에 와서는 이 이론은 체계(system)의 측면에서 가족의 구조와 행동을 설명하려는 사회과학자들에 의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즉, 전통적인 인간 심리학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간 행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시도된 생태체계이론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사회과학분야에서 적용되어지고 있는 핵심적인 이론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김희선, 2014; Hawley, 1995, 반기완, 2015; 박명숙, 1999).

Erikson(1968)은 인간의 성격발달을 생물학적 차원, 사회적 차원, 개인적 차원 등 세 가지 차원들 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결과물로 보았다.

생물학적 차원이란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통의 일반적 특성으로서 누구나 욕망과 충동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다. 인간의 발달과정은 미리 정해진 순서대로 나아가게 되지만 부분적으로는 성숙요인의 지배를 받는다고 한다.

사회적 차원은 사회적 관계를 추구하며 삶을 이어가는 인간발달 과정이 적정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의 상호적응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개인적 차원이란 사회적 환경 속에 포함된 한 개체로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측면에 따라 생물학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개개인이 동일한 인성을 갖게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이렇듯 생물학적 차원, 사회적 차원, 개인적 차원의 세 가지 차원을 적절히 통합한 사람이 이른바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이고 확고한 정체감을 확립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정옥분, 2004).

Bronfenbrenner가 제안한 인간발달의 생태학 이론(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Theory)은 인간발달 연구에 있어서 유기체가 실제 거주하고 성장하며 변화, 발전하는 환경 간의 일생동안 일어나는 상호작용과정에 역점을 두었다. Bronfenbrenner는 유기체-환경을 독립적 관계로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맥락적으로 관계된 상호의존적, 동태적 겹 구조 원심모형을 구성하는 네 개의 주요한 생태학적 환경 체계로 규정함으로써 유기체에게 적용되는 다양한 환경 간의 관계를 정립하였다(이경면, 2003).

생태학적 환경(the ecological environment)은 러시아 인형세트처럼 한 구조가 그 다음 구조속에 끼워지게 되어 있는 일련의 겹구조(nested structure)들로 상상될 수 있다. 이러한 겹 구조물 속에 적용된 개념적 용어를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라고 정의하고 있다.

생태학적인 환경은 발달하는 유기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즉각적인 상황(situation), 즉 유기체가 반응하는 대상이나 그가 얼굴을 마주대하고 상호작용하는 인접한 유기체들을 초월한 훨씬 확대된 개념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인식해야 할 것은 그 장면(setting)에 함께 있는 또 다른 유기체들 간의 관계 그 관계가 본질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관계가 직접 그 유기체를 다루는 또 다른 유기체들에게 영향을 줌으로써 발달하는 유기체에게 간접적으로 주는 영향들이다. 이러한 즉각적인 환경내에서의 상호 관계들의 복합적 체계를 미시체계라고 부른다.

상호연결성의 원리는 장면들 내에서만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장면들 간의 연결 고리들에게도 동일한 힘과 결과로써 적용된다고 보아진다. 발달하는 유기체가 실제로 참여하는 장면은 물론 그가 한번도 참여한 적이 없어도 그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그 사람의 직접적인 환경에서 무엇인가 일어나도록 영향을 끼치는 경우까지도 적용되는 것이다. 전자가 중간체계이고 후자가 외체계가 된다.

마지막으로 겹구조로 된 상호 관련된 체계들의 복합체는 특정한 문화나 하위문화에 공통되는 사회적 제도의 이념과 조직의 상부를 덮고 있는 아치형태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체계내의 일반화된 형태를 거시체계라고 부른다(Bronfenbrenner, U. 이영, 1992).

이러한 체계 간의 상호 작용은 가족내의 부모-자녀 관계, 이웃, 학교, 또래관계와 같은 직접적이고 인접한 환경에서부터 발달단계에서 마주하게 되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비롯하여 부모의 직장관계, 부모와 학교관계, 국가의 정체성, 이데올로기, 정부의 정책, 문화, 사회체계와 같은 유기체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다양한 형태의 광범위한 체계를 포함하고 있다(문수경, 2004; 최옥희, 2006).

미시체계(microsystem)는 유기체가 생활하는 직접적인 환경체계를 의미하는데 대표적으로는 부모-자녀관계, 형제-자매, 부모의 양육태도 등이 포함된다. 그 밖에도 또래환경, 학교환경 등도 미시체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최옥희, 2006).

중간체계(mesosystem)는 학교와 가정, 이웃 등 미시체계들 간에 사회적으로 연결되거나 상호관계가 유지되는 부모-직장관계, 부모-교사관계, 부모-자녀의 친구와의 관계,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학업성취기대 등의 환경체계를 말한다(김영란, 2015; 김희선, 2014).

이 같은 체계적 관점은 단순히 청소년과 부모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정도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미시체계들 사이의 사회적 연결체계인 중간체계의 이해가 필수적이며 이러한 체계의 속성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청소년 개인이나 가족 간의 관계를 온전히 이해하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Bronfenbrenner는 밝히고 있다.

외체계(exosystem), 즉 외부체계는 중간체계 바깥에 위치한다. 외체계는 성장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경험되지는 않으나 그들의 발달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상황이다. 즉, 부모의 직업환경, 이웃관계, 정부기관, 비형식적인 사회적 관계망, 부모의 자녀를 위한 교육기회 등이 있다(홍정미, 2008; 문수경, 2004). 외체계 바깥에는 거시체계가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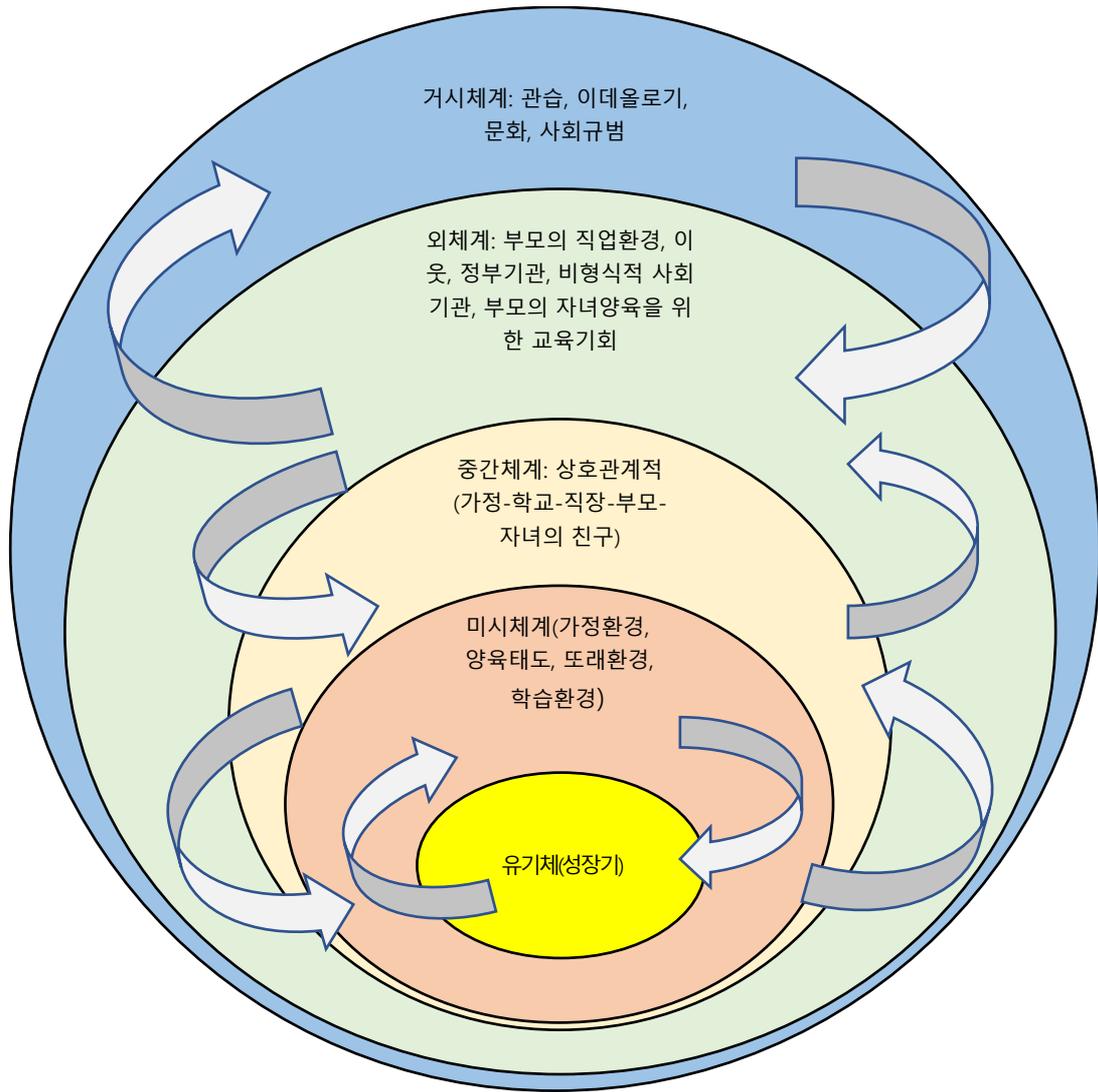
거시체계(macrosystem)는 유기체와 직접적으로 마주한 환경은 아니지만 유기체가 소

속한 사회문화나 하위문화의 가치, 이념, 관습, 법률, 규범 등이 이에 해당한다(김은미, 2012; 김희선, 2014). Bronfenbrenner는 거시체계에서의 변화가 미시체계에 영향을 주고 외체계의 변화는 다시 중간체계와 미시체계에 영향을 주는 상호 연결된 체계를 이룬다고 하였다(김영인, 김민, 2008).

그러나 Bronfenbrenner는 인간발달의 생태학적 측면에서 새로운 이론을 제시한 것은 맞지만 체계간 다차원적 단계에 따른 이론적 해석이 너무 복잡하고 난해한 점 때문에 인간발달과의 상관여부를 검증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고 한다(김은미, 2012; 최옥희, 2006; 황민자, 2011).

또한 다 차원적인 체계들의 상호적응에 대한 분석의 수준과 환경의 어느 지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모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김은미, 2012; Horowitz, 1987).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정리하면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체계환경의 개념은 인간 유기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환경의 작용을 독립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체계 간의 연결된 맥락적 관점에서 동심원형태로 유기체에게 유기적(organic)으로 영향을 주며 유기체 역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순환적 구조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림 II-1]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체계이론의 개념모형도(출처: 문수경(2004): 편집)

2. 그릿의 개념

비인지적 요인으로 최근 다양한 계층에서 연구되고 있는 그릿은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왜 같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지 예측할 수 있는 성취의 예측 변인이라고 알려져 있다(이수란, 2004; 정헬렌, 2011).

그릿의 의미가 처음으로 형성된 것은 영화 ‘더 브레이브’(원제: true grit)²⁾에서 19세기 카우보이들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견디어 낸다는 것과 관련이 깊다. 그들이 임무를 완수하고자 할 때 들어 난 특성 또는 기질을 오늘날의 개념으로 바꾸어 인성, 체력, 결단의 강인함의 비유적인 모습을 그릿으로 이해하기

²⁾ 1968년 찰스 포트리스(Charles Portis)의 true grit이라는 소설이 1969년 영화로 제작되었으며 이후 코엔 형제가 2010년 리메이크를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진정한 용기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다가 2010년에는 더 브레이브라는 이름으로 상영된 적이 있다(황광원, “그릿의 인성교육 적용방안” (2016.12), p. 29.

시작한 것이다. (Barnhart & Steinmetz, 1988; Stokas, 2015; 523, 황광원, 2014. 개인 용).

그것은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실패, 고난, 역경, 좌절, 고원현상 (plateau phenomenon)에도 불구하고 끈기와 지속적인 열정으로 끊임없이 노력을 견지하며 포기하지 않는 인내와 투지를 포함한다(하혜숙 외, 2017). 이때의 목표란 짧은 기간 안에 이를 수 있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중단 없는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인내와 끈기로 나아가야 이를 수 있는 구체적인 상위목표를 의미한다(Duckworth, Peterson, Matthews, & Kelly, 2007). 장기적인 상위목표에 대한 지속적인 열정과 집념의 끈기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은 비인지적 요인으로서 목표에 대한 포기하지 않는 근성과 열정을 유지시켜주는 심리적 동기를 의미한다(Duckworth).

그것은 등산이나 마라톤 경기와 같아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간체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근성, 투지, 열정과 집념, 끈기 등 불굴의 강인한 정신력으로 마침내 목표에 이르는 것에 비교할 수 있다. 그렇지만 목표를 이루어가는 상황에서 마주치게 되는 유혹 또는 일시적인 충동을 억제해주는 자기조절력과 자기통제력 등과는 차이가 있다. 자기조절력과 자기통제력은 단기적이고 순간적일 때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 기체이지만 그것은 장기적인 목표의 성취를 위해 높은 인내와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자기조절력, 자기통제력 등과는 차이가 있는 심리적 기체라고 할 수 있다(박준수, 2017).

그것은 집념, 투지, 천착(穿鑿)과도 비슷한 개념이다. 집념은 한 가지 일에 매달려 마음을 쏟는다는 뜻 외에 그 마음이나 생각을 집중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투지는 싸우고자 하는 굳건한 의지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천착은 목표를 명확히 하였으면 어려움이나 방해적인 요인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목표에 도달하려는 추진력을 의미한다. 또한 그것이 높은 사람은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높은 수준의 상위 목적을 지향하며 자신에게 가치 있는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려는 열정을 가지고 있다(이정림, 2015).

그것은 인내, 끈기 등과 유사한 개념이지만(하혜숙 외)단순히 인내와 끈기에 포함된 속성으로 그것의 개념을 결정 짓기에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상위 목표를 이루기 위한 지속적 관심과 열정을 모두 아우르기는 부족한점이 있다고 보아진다. 그것은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다시 회복하려는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가지고 열정과 인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능력이며(황광원, 2017) 성실성과 자기조절력(self-regulation)은 일상 생활속에서 자신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면서 단기적 목표에 도달할 때 까지만 유지되는 반면, 그것은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목표 지향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힘이라는 점에서 성실성과 자기통제감(self-control)과는 차이가 있다(노영석, 2016).

그것을 갖추기 위한 하위 요인은 스스로 노력하면 더 잘 할 수 있으리라는 능력성장의 믿음(Growth Mindset),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회복탄력성(Resilience), 자기 스스로 하는 일 자체가 재미있고 좋아서 하는 내재동기(Intrinsic Motivation), 목표를 향해 불굴의 의지로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끈기(Tenacity)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김주환, 2013).

성취욕이 높은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능력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단기적인 목표를 추구하고 성과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을 기대하지만 그것이 높은 사람은 즉각적인 보상을 얻지 못하더라도 어려운 과제를 성취하려는 도전 자체를 즐기며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끈기와 열정을 가지고 중단 없이 노력을 하는 것을 말한다(조수진, 2017).

그것의 개념정의에서 꼭 알아야 할 사항은 그것은 좋아했던 일에 대해 쉽게 흥미를 잃지 않는 관심의 지속성, 즉 열정과 노력의 꾸준함을 강조한다는 점이다(김미숙 외, 2015). 다음은 선행연구 중에서 발췌한 문헌(김석태, 2007)으로서 그것의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수학태도에 있어서 학생 A, B는 수학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가 낮았으나 학생 C는 수학공부가 재미있어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흥미가 높았다. 이런 결과는 성취동기나 목적의식에서는 세 학생 모두 높은 반응을 보였으나 자신감, 흥미, 자율학습(능동 학습)에서는 C학생은 A, B학생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생 C는 1학년 때부터 혼자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 모르는 문제를 끝까지 파고드는 끈기와 지구력으로 지금은 어려운 문제를 즐기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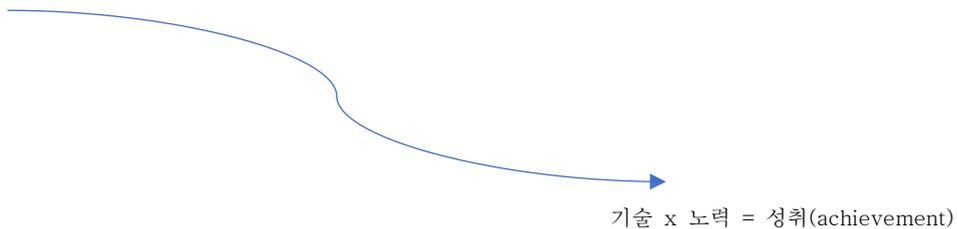
다큐멘터리영화 스펠바운드(Spellbound)는 미국의 여학생 다섯 명과 남학생 세 명이 겨루는 스크립스 내셔널 스펠링 비(Scripps National Spelling Bee)의 결선을 전국에 생중계방송을 한다. 스펠링 비는 단어의 철자를 한 자, 한 자 발음해서 맞는 세계최대 규모의 영어발음 대회이다.

여덟 명의 학생이 결선대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전국 각 지역 수백 개 학교의 수천 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겨루어서 승리해야 만이 결선에 진출할 수 있다. 이들을 상대로 사전에(beforehand) 그릿 점수와 언어지능, 즉 재능 검사를 실시해보았다. 예상대로 그릿 점수가 높은 학생이 최종 결승전에 진출하였다. 언어지능 점수 등도 몇 라운드까지 진출할 수 있는지 예측을 해주었다. 하지만 그릿 점수와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연구결과 그릿은 오히려 재능과 반비례 관계로 확인되었다(Duckworth).

그릿이 재능과 반비례 관계로 확인이 되었다는 점은 재능을 믿고 노력을 가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역기능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내셔널 스펠링 비의 결선에 도달한 학생들의 그릿 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원인은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한 결과라고 보아진다. 재능이란 노력을 했을 때 향상되는 기술의 속달 속도라고 할 수 있으며 목표에 도달한 성취는 습득한 기술을 바탕으로 노력을 가하여 얻은 결과가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성취는 재능과 기술을 바탕으로 노력을 2배 했을 때 얻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Duckworth는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재능과 성취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text{재능} \times \text{노력} = \text{기술(skill)}$$



[그림 II - 2] 노력의 중요성(출처: Duckworth, 2017: 편집)

현재 미국에서는 그릿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선행연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미국 교육부는 그릿을 21세기 교육 덕목 중 꼭 필요한 핵심요소로 선정하였으며 오바마(B. Obama)대통령은 2015년, 2016년 신년연설에서 연속적으로 그릿이란 단어를 언급함으로써 그릿에 대한 연구가 한 층 활발히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Shechtman, DeBarger, Dornsife, Rosier, & Yarnall, 2013; 황광원, 2017).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정부의 정책적 측면이나 교육적 목적에 의한 그릿에 대한 특별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반면에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 그릿과 관련된 도서는 종종 편찬되고 있으며 학생들에 의한 연구논문 등도 빈번하게 제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연구된 그릿에 대한 선행구들의 정의를 보면 그릿을 투지와 유사한 개념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으며(이수란, 2014) 그릿은 단기적 목표를 이루기 위함에 있어 방해요소가 되는 유혹 등을 순간적으로 억제하는 자기통제 등과는 구분된다고도 하였다(이정림, 2015). 또한 그릿을 회복탄력성과 끈기에 비교하기도 하였다(김미숙 외, 2017; 김주환, 2013; 김희명, 2015; 노영석, 2016; 박준수, 2017; 이수경, 2016; 이수란, 2015; 이정훈, 2018; 조수진, 2016; 하혜숙 외, 2017; 한양숙, 2014; 황광원, 2017).

Goodwin과 Willer, 2013, 박준수(2017. 재인용)는 그릿이 높은 사람의 특성을 네 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그릿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목표가 무엇이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다. 둘째, 동기수준이 높아 자신이 상정한 목표를 꼭 이루고자 하는 강한 추진력을 스스로 부여한다. 셋째, 자기통제(self-control)력이 높기 때문에 방해요소에도 주의가 흐트러짐이 없이 당면한 과제에 집중한다. 넷째, 긍정적인 마인드셋(mindset)을 지니고 있어 도전을 받아들이고 설령 실패하더라도 그것을 학습의 기회로 삼는다라고 하였다.

Duckworth는 재능 및 지능과 함께 성공을 예측하는 비인지적 영역인 그릿을 키우기 위한 방법으로 첫째, 관심을 지속시켜라, 즉 열정을 지속시키는 것이다. 열정은 자신이 하는 일을 진정으로 즐기는 데서 시작된다. 둘째, 의식적인 연습을 하는 것이다. 매일매일 목표를 정해 놓고 어제보다 더 잘해보려고 끈질기게 실시하는 의식된 연습은 그릿을 성장시키는 지름길이다. 셋째, 뚜렷한 목적이 필요하다. 확신에 찬 목적은 열정을 발생시키며 끈질긴 연습을 강요하게 한다. 넷째, 희망이다. 희망은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온다라고 주장한다.

이상과 같은 그릿의 개념과 그릿 척도를 높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다양한 논지를 요약하면 그릿은 자신의 능력을 한계로 여기며 주어진 현재의 환경에 만족하여 안주하기 보다 스스로 노력하면 더 나은 목표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는 능력성장의 믿음(Growth Mindset), 역경과 어려움이 따르지만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회복탄력성(Resilience), 어떤 외부의 보상이나 기대에 의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닌 본인 스스로 도전하는 일 자체에 보람을 느끼고 자부심으로 추진해 나가는 내재동기(Intrinsic Motivation), 목표를 향해 불굴의 의지로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 없이 도전하여 기어이 목표를 성취하는 끈기(Tenacity)라고 할 수 있다.

그릿이란 단기적 수행으로 이룰 수 있는 단순과업이 아닌 장기적이고 복잡한 상위수준의 구체적 과업성취에 대한 어렵고 힘든 과정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는 마인드셋(mindset), 지속적인 관심, 열정, 끈기, 투지를 잃지 않고 기어이 이루고야 말겠다는 강한 정신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

<표 II - 1> 그릿과 유사한 개념들

용어	정의
끈기	방해, 장애물, 어려운 수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려는 의지이다(이정훈, 2018, 황광원, 2017, 하혜숙 외, 2017).
내재적 동기	어떤 분리될 수 있는 결과를 위한 것보다는 내재적인 만족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다(김미숙 외(2015).
몰입	개인이 자신의 행위에 완전히 몰두하여 최적의 경험을 하게 되는 심리적 상태이다(Csikzentmihaly, 1975, 박정배, 2010).
성실성	사회적 규범, 규칙, 원칙 등을 준수하고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려는 정도로 하위요인은 유능감, 전문성, 충실성, 성취에 대한 갈망, 자기규제성, 신중성으로 구성되어 있다(이수란, 2014).
성장 마인드셋	성장 마인드셋(growth mindset)은 자신의 지능은 열심히 노력하고 학습하면 변화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이다(Dweck, 1999, 박선의, 2016).
성취동기	장애를 극복하고 능력을 발휘하여 곤란한 일을 해결해 목표를 달성하려는 욕구 또는 도전적이고 어려운 과업을 훌륭히 성취하고 싶어 하며 성취결과보다 과정에서 만족을 얻으려는 내적 의욕이다(Murray, 1938, 노영석, 2016).
용기	내외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성취하려는 의지적 덕목을 이르는 것이다(Peterson & Seligman, 2004, 황광원, 2017).
자기조절력	Self-regulation은 어려운 일을 오래도록 견딜 수 있는 지구력이며, 끈기이고 집념이다(김주환, 2013).
통제소재	Locus of control는 행동이나 강화 그리고 결과를 통제할 수 있는가에 관한 개인의 일반적인 신념이나 기대이다(Rotter, 1966, 이정림, 2015).
투지	장기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열정과 인내를 말한다. 즉 Grit이다(이수란, 2014).
회복탄력성	Resilience는 심리적 환경적 스트레스를 극복하여 내면화하고 발전적 준비상태로 돌아가려는 긍정적 성격특성이다(권경희, 2017; 김주환, 2013; 신명용, 2018).

3. 유기체 변인과 성격5요인

가. 유기체 변인의 개념

유기체란 성장하는 개인, 즉 자기 자신의 객체 그 자체를 의미하며 태어날 때 부여받은 성별, 나이, 기질, 성격 등이 포함된다(김영란, 2015; 김희선(2014; 이정미, 2005). 본 연구에서도 유기체 변인이란 개인이 태어남을 의미하는 객체에 포함된 성별, 나이, 기질, 성격을 의미하며 그 중 선행연구자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연구된 성격5요인을 유기체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인간 유기체는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체계이론의 이론구조 중 가장 중심에 위치하며 체계내에서의 상호 작용은 유기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김보민, 2013; 김희선, 2013; 홍정미, 2008).

나. 성격5요인의 개념

Allport(1961)는 성격이란 한 개인의 독특한 사고와 감정, 행동양상을 드러내는 심리 및 신체적 체계의 역동적인 표현이 다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성격은 한 개인을 다른 사람과 차별화시켜 주는 개별성(personality)이 되며 개인의 일생에 있어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일관적이며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특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권은진, 2017; 박미선, 2011; Little, 2014; Nittle, 2007).

권석만(2015) 역시 인간의 성격은 시간의 흐름과 상황의 변화에도 비교적 영향을 덜 받는 안정적이고, 일관적으로 유지되며 타인과 차별되는 개성이라고 특정 지을 수 있는 고유성과 독특성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성격은 개인의 삶의 과정에서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어 내재화 된다. 이렇게 형성된 개인의 성격은 다른 사람과 차별되는 고유한 가치관과 정서체계, 그리고 독특한 생활태도와 신념 등으로 외부세계로 드러나게 된다(이홍숙, 2017).

<표 II-2> 성격5요인의 하위 구성요소(자료 출처: 김기호, 2018)

성격5요인	하 위 요 인	
신경과민성(Neuroticism)	불안감(Anxiety)	자의식(Self-consciousness)
	적대감(Angry hostility)	충동성(Impulsivity)
	우울함(Depression)	심약성(Vulnerability)
외향성(Extraversion)	따뜻함(Warmth)	활동성(Activity)
	사교성(Gregariousness)	흥분추구(Excitement seeking)
	주장성(Assertiveness)	긍정정서(Positive Emotions)
개방성(Openness)	상상력(Fantasy)	행동개방성(Actions)
	심미성(Aesthetics)	사고개방성(Ideas)
	감정개방성(Feeling)	가치개방성(Values)
친화성(Agreeableness)	신뢰성(Trust)	순응성(Compliance)
	솔직성(Straightforwardness)	겸손함(Modesty)
	이타성(Altruism)	은유함(Tender mindedness)
성실성(Conscientiousness)	유능성(Competence)	성취추구(Achievement striving)
	정연성(Order)	자기절제(Self-discipline)
	충실성(Dutifulness)	신중성(Deliberation)

이와 같이 개인의 성격은 특수한 상황에 대해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사고하고 느끼고 행동하며 상호작용하는 개인의 심리 내적 특질, 즉 개성화 된 정신세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김하경, 2016). 또한 성격의 5요인이론(Five Factor Theory: FFT)은 Costa & McCrae(1992)에 의해서 정립된 성격이론으로 심리학분야에서 경험적인 조사와 심층적인 연구를 통하여 체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성격5요인(Big Five Personality Factors)은 신경증(Neuroticism), 외향성(Extraversion), 개방성(Openness), 친화성(Agreeableness), 성실성(Conscientiousness)의 다섯 가지 요소가 있으며 다양한 성격이론 중 현대 심리학계에서 가장 인정받고 있는 성격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김영란, 2016; 한양숙, 2015).

Allport, Cattell, Eysenck 등 많은 성격연구의 선구자들은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성격특성을 범주화 하는데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동안 심리학자들은 성격을 가장 잘 설명하는 요인의 수를 한 개(General Personality Factor(GPF), Muske, 2007; Rushton & Irwing, 2008; van der Linden, te Nijenhuis & Bakker, 2010)에서 일곱 개(Big 7, Almagor, Tellegen & Waller, 1995; Benet-Martnez & Waller, 2002) 또는 열여섯 개 요인(Cattell, 1946)도 있음을 서로 주장하면서 성격 특질의 적절한 개수에 대한 논쟁을 이어 왔다. 예를 들어 Eysenck는 정신병적 경향성, 외향성, 신경증적 경향성의 3요인을 주장했다면 다른 연구자들은 하나의 일반 성격요인만 하여도 성격에 대한 모든 것을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또 다른 선행 연구자들은 사회화(알파)와 현실화(베타)의 2요인만을 주장하기도 하였다(McCrae & John, 1992, 정영숙 외, 2013. 재인용).

현대에 이르러서는 성격특성 요인으로 Costa와 McCrae가 제시한 성격5요인 모델 즉, 신경증적 경향성, 외향성, 개방성, 우호성, 성실성 등이 대체로 성격심리학계의 고른 지지를 받고 있다.

Eysenck이론의 3요인과 Costa & McCrae의 5요인 모델 간에는 서로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고대 철학자의 네 가지 기질에 대한 개념화(공기, 흙, 불, 물)와 유사하다(김기호, 2018).

대부분의 성격심리학자들은 특질이 성격의 기본단위라는 점에는 이견(different view)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특질의 수와 내용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 서로 다른 의견을 견지하고 있었다. 이처럼 성격 특질이론의 핵심적 내용에 대한 의견대립으로 인해 특질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비판과 회의(skepticism)가 확산되어 한 동안 성격에 대한 연구가 위축된 적도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기부터 다양한 표본과 발전된 측정도구를 사

용한 여러 갈래의 연구에서 5개의 유사한 성격요인이 반복적으로 발견되었다. 이처럼 성격의 5요인 이론(FFT)은 선구자 적인 선행 연구자들의 집약된 연구결과에 근거하고 있으며 현대 심리학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특질이론으로 인정되고 있다(권석만).

McCrae와 Costa(1985)는 1980년대에 자기보고 형태의 검사지인 NEO-PI를 개발하였는데 요인분석을 통해 그 검사가 5요인을 측정하고 타당성과 신뢰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90년대 들어와서 McCrae & Costa(1992)는 성격5요인이 개인의 성격구조에 가장 근접하는 대표적 이론이라는 사실을 제차 확인하고 그것을 근거로 수정판 NEO-PI-R을 제작하였다(김수정, 2010; 김영란, 2016).

현대 성격 특질 연구자들은 개인의 성격을 표현함에 있어 몇 개의 중요한 특질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지만, 단지 그것 만으로 인간 성격의 모든 부분을 묘사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래 성격 연구자들은 다섯 개의 기본 특질, 즉 성격5요인을 상징하는 성실성, 우호성, 신경증적 경향성, 개방성, 외향성이 존재한다는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으며 지형적으로 격리되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세계 56개 국가의 사람들을 상대로 성격5요인 관계여부를 조사한 연구(Schmitt et al., 2007) 결과에서도 다섯개의 기본 특질이 확인된 바 있다(David G. Myers, 민윤기, 전우영, 권선중, 2011). 이렇듯 개인의 성격 특질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지나도 잘 변하지 않는 안정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성격 특질, 즉 정서적 불안정성, 외향성, 개방성 등은 그 수준이 대학 졸업 후 10년사이에는 약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우호성과 성실성 같은 특질은 오히려 약간 증가하기도 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Vaidya et al., 2002, 민윤기 외).

다. 성격5요인과 그것의 관계

성격이란 개인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서 표현되는 자신만의 고유한 심리 정서적 특질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Costa & McCrae(1992)는 성격5요인을 개인의 잠재력과 방향성을 결정짓는 보편적인 대응원리라고 본 것이다. Costa & McCrae는 초기 연구에서는 개인의 성격특성은 환경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순수한 인간 심리 내적인 성향으로 보았다. 하지만 이후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성격특성은 환경의 적응 상태에 따라 대인관계에 대한 대처능력, 생활방식에 따른 적응 태도, 역할, 표현 등의 대응양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한양숙, 2015).

성격5요인은 다섯개의 하위요인으로 분류되는 바 즉, 신경과민성, 외향성, 개방성, 우호성, 성실성(Costa & McCrae, 1992)으로 첫째, 신경과민성(neuroticism)은 불안, 우울, 분노와 같은 부정 정서를 잘 느끼는 성격특성을 뜻하며 둘째, 외향성(extraversion)은 다른 사람과 함께 교류하는 인간관계적 자극을 선호하는 성향을 뜻한다. 셋째, 개방성(openness)은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체험을 좋아하며 다양한 경험과 가치에 대해서 열린 자세를 지닌 개방적인 성향을 뜻한다. 넷째, 우호성(agreeableness)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친화적이고 협동적인 성향을 뜻하며 친화성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다섯째, 성실성(conscientiousness)은 자기조절을 잘 하고 규율에 대한 책임감 등이 강한 성취 지향적인 성향을 말한다(권석만, 2015; 하혜숙 외, 2015; Costa & McCrae, 1992; McCrae & Costa, 1986).

Duckworth는 미국사회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지도자들을 면담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 ‘현재 본인의 전공분야에서 최고는 누구 라고 생각합니까?’, ‘그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그들은 어떤 점이 특별하다고 생각합니까?’,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왜 실패에도 포기함이 없이 그렇게 끈덕지게(tenacity) 자신의 일에 집착하였을까요?’ 등등, 그가 내린 결론은 미국사회에서 성공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타고난 재능이나 높은 지능 등과 같은 선천적 자질 때문이 아니라 분야에 상관없이 굳건한 의지를 보였고 이는 두 가지 특성(characteristics)으로 나타났다. 첫째, 그들은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다시 시도하는 회복력(resilience)이 강하고 근면했다. 둘째, 자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즉 자신의 목표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결단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갈 방향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들, 즉 미국사회에서 성공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특별한 점은 지속적인 열정(passion)과 결합된 끈기(tenacity)였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개인의 삶속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서 표현되는 자신만의 고유한 심리 정서적 특질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격5요인과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높은 그릿에 대한 상관관계를 탐색한 연구들은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다만 김주환(2013)은 그릿은 동기(motivation)에서 비롯되는 바 무슨 일이든 열정적으로 해내려면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 자기동기력(Self-motivation)이라 한다. 자기동기력에는 외재동기력과 내재동기력 두 가지가 있으며 외재동기력은 어떠한 보상 때문에 특정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비해 내재동기력은 보상 때문이 아니라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일 자체가 즐겁고 재미있어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는 것을 말한다. 높은 그릿이 형성되려면 외재동기력, 내재동기력 둘 다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내재동기가 주축이 되어야 하겠지만 때로는 내재동기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외재동기도 필요하다. 외재동기는 내재동기를 분발하게 하는 일종의 자극제가 되는 것이다. 또한 자기동기력 외에 정해진 목표를 향해 힘든 난관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통제할 수 있는 자기조절력(self-regulation)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한양숙(2014)은 ‘초등 영재학생의 그릿(Grit), 그릿 개별요인, 성격5요인의 관계’의 연구에서 그릿, 그릿의 개별요인과 성격5요인의 상관계수를 확인해본 결과 그릿은 성실성,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의 순으로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신경증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이 내린 결론과 본 연구자가 실행 연구할 그릿-성격5요인과의 관계를 유추해보면 성실성,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등은 그릿과 정적 상관을 보일 것이며 신경증과는 부적상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릿과 정적상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성격5요인 중 첫째, 성실성(conscientiousness)은 그 하위 척도로 역능감(자기효능감), 질서, 의무수준, 성취노력, 자기훈련, 조심성 등이 있다. 성실성은 개인의 조직화 정도를 말하는 데 조직화란 물리적 조직화(사무실 정리 등), 정신적 조직화(계획 세우기 등)등이 있다. 그리고 성실성에는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기, 욕구 만족지연하기, 규범과 규칙준수 등과 같은 자신의 충동을 얼마나 잘 조절하는지가 포함되어 있다. 성실성이 높은 사람들은 동료 및 배우자에 의해서도 조직화가 잘 되어 있으며 규율에 철저히하며 근면하다고 평가된다(McCrae & Costa, 1987, 정영숙 외, 2014.).

성실성이 그릿과 정적상관관계를 보임으로서 그릿과 유사한 성격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연구되었지만 그릿의 하위요인인 장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관심의 지속성, 즉 열정은 성실성의 하위요인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선행연구에서는 밝히고 있다(Duckworth, 2007). 둘째, 외향성(extraversion)은 따뜻함, 사교성, 자기주장성, 활동성, 흥분추구, 긍정적 정서 등의 순으로 하위요인이 포함되어 있다. 외향성은 내향성과 대조되는 성격요인으로 개인이 대응상황에서 걱정적인지, 또는 얼마나 열정적으로 세상에 개입하는지를 나타낸다. 외향성은 또한 사람들을 좋아하고 자기주장적이다. 매사에 적극적이며 말이 많고 쾌활하다. 인간관계를 위한 모임을 좋아하며 자극과 흥분을 흔쾌히 받아들인다(김남준, 2018). 셋째, 개방성(openness)은 ‘탐구적인 지성’이다. 개방성의 하위 구성요인으로는 공상, 심미성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술적 취향, 감성적 정서, 모험적 행위, 다양한 아이디어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상상력이 풍부하며 창의적인 반면, 개방성이 낮은 사람보다 덜 관습적이고, 실제적이며 현실적이 된다.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경험 그 자체를 좋아하고 다양성을 열심히 추구하고 불확실한 상황을 잘 견디며 보다 여유롭고 단순하면서 현실적인 삶을 산다. 반대로 개방의 반대 뜻인 폐쇄적인

사람은 상상력이 부족하고 표현이 소극적이며 예술과 아름다움을 직접 표현하기를 싫어한다. 환경에 대응하는 속도가 느리며 정서가 억제되어 있어 행동이 경직되고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싫어하며 대인관계에서 독단적으로 보일 수가 있다(장은지, 2017). 넷째, 친화성(우호성: agreeableness)은 대인관계의 질 즉, 개인이 대인관계에서 포용력이 얼마나 있는지 등에 관한 것으로 외향적 사람처럼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그런 즐거움을 추구하는지 아니면 내향적 사람처럼 그렇지 않은지에 관한 것이다. 또한 친화성은 사회 친화적이고 다른 사람과 공유된 관심사를 충분히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성격으로 간주되며 저항적이거나 경쟁적인 것과는 반대가 된다(Costa & McCrae, 1992; Graziano Eisenberg, 1997; John et al., 2008, 정영숙 외). 다섯째, 그릇 척도와 부적 상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신경증(신경증적 경향성: neuroticism)은 부적 정서성과 정서적 반응성을 말한다. 이 성격과 관련된 성격 특질은 불안한, 우울한, 죄책감을 느끼는 낮은 자기존감, 긴장된, 불합리한 수줍은 변덕스러운, 감정적인 것 등이다. 신경증적 경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쉽게 혼란스럽게 되고 부정적 정서에 쉽게 빠지는 취약한 경향이 있다. 반대로 이 특질이 낮은 성격의 소유자들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침착하다. 여유가 있고 걱정이 없으며 다소 비감정적이고 당혹스러운 경험이 있는 후에도 비교적 빨리 회복되는 성격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박미선, 2011; Eysenck, 1990; Eysenck & Eysenck, 1985, 정영숙 외, 2014).

4. 가정의 환경적 변인과 그릇의 관계

가. 가정의 환경적 변인

가정은 개인이 태어나서 삶을 의존하고 성장하며 가족과 함께 생활을 이어가는 곳이다. 가정은 사회생활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성격(personality)형성의 배경이 되는 곳이기도 하다(노영운, 2004; 류희정, 2010; 진금남, 2014 한세리, 2017). 또한 가정은 삶의 터전이면서 동시에 인격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교육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박용기, 2004).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란 개인의 모든 일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의미하고 있다(신각균, 2013). 가정은 개인의 전면적이고 장기적인 접촉을 통해 가족과 상호작용하며 인격이 형성되고 생활습관이 길러지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적 환경이다(연보라 장희원, 김경근, 2013). 아울러 가정은 개인에게 안정적인 삶의 조건과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의 성격형성에 일차적인 역할을 하며 윤리적, 인습적, 사회적으로 승인된 관습과 규범습득의 동기를 제공한다.

가정환경은 보다 심리적인 성질의 환경으로 인간형성이라는 관점에서 학교환경이나 사회환경에 비해 보다 강력한 영향을 지니는 환경이다. 물론 학교환경이나 사회환경도 인적 구성원의 제반 심리적 특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구평희, 2003).

가정은 윤리적, 관습적, 사회규범적으로 비용인(unacceptable)된 비행이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규제와 감독, 처벌을 통하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온전히 성장하도록 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개인의 도덕적 가치 및 질서와 규범을 수용, 순응하는 행위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가정은 정신적 지주(support) 및 물질적 자원제공, 애정적 유대, 사회화, 그리고 훈육과 통제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기광도, 이연길, 2002). 이와 같은 개인의 심리적 인격형성에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는 가정이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게 될 때 비로서 유기체는 보편적 인간으로 성장하게 되어 가치 있는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였던 Coleman은 1964년 미국 전 지역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측정하기 위해 1,3,6,9,12학년 학생 645,000명 및 교사 60,000여명을 포함

한 4,00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업성취능력 시험을 실시하였다. 그 중 가장 주목할 점은 학생들의 학업성취 격차는 가정, 이웃, 또래의 영향이 유의한 수준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외로 학교시설 및 1인당 소요 예산 그리고 학급 크기, 교사의 교육수준 등의 영향은 미미하게 나타났다(오욱환, 2003). 결론적으로 좋은 학교시설, 예산, 훌륭한 선생님들도 학업성취에 꼭 필요한 요인이긴 하지만 그보다는 가정환경 또는 이웃, 또래 환경이 학업성취에 더욱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 연구결과 확인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릇은 유전이 되나요?’란 질문의 답변에서 다양한 재능, 역시 유전자의 영향을 받고 태어나는 것은 틀림없지만 100% 유전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유전적 요인의 재능이 만사형통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듯하지만 환경적 요인 또한 절대 빼놓을 수는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연구에서 드러난 결과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연구자들은 그릇-유전-환경-경험에 대한 상관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영국에 살고 있는 쌍둥이 2,000쌍을 대상으로 유전과 환경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바로는 그릇 척도 중 끈기의 유전율은 30%, 열정의 유전율은 20%였다. 끈기의 유전율 30%, 열정의 유전율 20%를 제외한 나머지 50%, 즉 절반은 유전 이외의 경험과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Duckworth). 연구결과를 인용하면 아무리 타고난 재능이라고 하지만 실제 본인이 가지고 태어난 것은 50% 미만인 것이 된다. 나머지 50%는 환경과 경험의 산물(product)이 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사례이다.

유기체는 태어나서 1차적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게 되는 가정환경, 사회환경, 학교환경, 또래환경 등 다양한 미시체계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관계를 이루며 성장한다고 선행연구에서는 언급하고 있다.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체계이론에 따르면 유기체는 4차원의 생태학적 체계내에 소속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삶을 영위(lead a life)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네 가지 차원의 체계 중 미시체계의 가정환경(home environment)은 개인이 심리 정서적, 물리적, 사회관계적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환경이라고 하였다(김은혜, 2008; 현다경, 2017). 이처럼 미시체계와 중간체계의 겹 구조속에 포함된 가정의 환경적 변인의 하위요인인 부모-자녀관계요인, 경제적 요인, 문화적요인, 부모의 양육태도 요인 등은 개인의 성격형성에 필요 불가결한 요인이 될 것이며 본 연구의 주제이기도 한 그것에도 특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이다.

1) 부모-자녀관계 요인

유기체가 태어나면서 최초로 대면하게 되는 가족은 삶을 영위해 가는데 있어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대상이다. 가정의 구성원인 가족 간의 관계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가정은 유기체의 성격형성 및 생활태도, 사회관계형성에 초석(foundation stone)이 되어 유기체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는 밝히고 있다(고민좌, 2017; 김지혜, 2017).

이와 같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자녀관계, 형제-자매관계 또는 조부모-손 자녀관계 등 가족관계의 틀(frame) 속에서 구성원들은 자연스럽게 가족의 전통과 문화를 습득하게 되며 나아가서는 가족내에서의 역할과 대인관계, 사회 적응 등 개인의 상황에 따른 대처양식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는 사회관계의 기본이 된 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주은미, 2011).

부모-자녀관계에 있어 자녀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으로 심리적 발달과 사회적 적응에 절대적 영향을 받으며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는 자녀로 하여금 정서적 안정과 자존감 향상, 자기개념, 성취욕구 등을 소유하게 된다(김경은, 2017; 도미향, 채경선, 2006; 주은미, 2011). 또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 등도 배우게 된다(박영림, 최해림, 2002).

부모-자녀 관계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김지영, 2008)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는 자녀가 부모의 가치관을 내면화 하여 자녀의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Vygotsky, 유원, 2017).

부모-자녀의 관계를 의사소통유형으로 연구한 사례에서는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은 자녀가 사회화를 겪는 과정에서 자아를 확립하고 사회에서 원만한 적응력을 기르는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김숙향, 2017; 이현미, 2016). 부모-자녀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를 참조하면 부모-자녀의 친밀한 관계는 자녀의 의사소통 기술을 발전시키며 자녀의 심리발달과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학교적응에도 중요한 변인으로 보았다.

Bowlby(박수빈, 2015)는 필요할 때 지지해주고 허용 적이며 자율성을 북돋아 주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비교적 안정적이면서도 자기 신뢰감이 높은 사람으로 성장한다고 그의 이론에서 밝히고 있다.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는 자신의 내면에서 작동하고 있는 자기, 자녀, 타인의 모델과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며 자녀에게도 내적 작동모델에 의문을 품고 수정하는 데 항상 개방적인 자세를 유지하라고 가르친다. 이런 이유 때문에 Bowlby는 가족이라는 소문화를 통한 정신적 건강과 건강하지 못함의 대물림은 매우 중요하며 유전자에 의한 유전보다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고 주장하였다(Bowlby, 1973; 이민희, 정태연, 2004).

맹자(BC. 372~ BC. 289)는 부자유친(父子有親), 군신유의(君臣有義), 부부유별(夫婦有別) 장유유서(長幼有序), 봉우유신(朋友有信), 즉 오륜(五倫)이라는 교학사상(the idea of teaching)을 전파한 바 있다. 그 중 부자유친이란 부모는 자녀에게 자애(the love)롭고 자녀는 부모에게 효(filial duty)를 다하는 즉, 부모-자녀 간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오륜의 가장 으뜸 덕목(virtue)이라고 하였다(김무현, 2006).

유기체가 태어나면서부터 관계가 형성되는 부모-자녀관계는 유기체의 모든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부모-자녀의 상호 긍정적 관계는 자녀의 자아개념 및 자존감 향상 그리고 성취의욕을 고양(uplift)시킴으로써 그것에도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 경제적 요인

인간은 본인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과 지위, 보수, 그에 따른 사회적 평가 등에 따라 사회적 역할이 달라진다. 그리고 사회체제 내에서는 직업과 생태학적 체계의 배경, 또는 개인의 능력 기술 등에 의해 사회적 특권, 이익 등이 불평등하게 나누어져 있다(이도경, 2017).

미국의 심리학자 Margo Gardner와 컬럼비아대학교의 연구자들은 미국 10대 청소년 1만 1,000명을 26세가 될 때까지 추적하는 종단연구를 실시했다. 연구자들은 고등학교 때 특별활동에 1년간 참여한 학생들의 경험과 2년간 참여한 학생들의 경험이 성인기의 역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해보았다. 1년 이상 특별활동을 한 학생은 대학을 졸업할 가능성과 청년기에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또한 1주일 동안 특별활동에 할애한 시간은 청년 실업자로 전락하지 않고 취업을 하고 수입도 더 많을 가능성을 예측해주는 변인이 되었다. 하지만 이는 특별활동에 2년 동안 참여한 학생들에게만 해당됐다. 특별활동은 젊은이들이 장기적 목표를 향한 열정과 끈기, 즉 그것을 연습하고 발전시킬 수단이 될 수 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입학처장 피츠시먼스는 입학처에서 40년이상 근무하면서 느끼는 사실인데 대부분의 사람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문제는 열심히 노력하고 투자를 발휘하도록 충분한 자극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다. '결국에는 그런 사람이 가장 성공하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음악, '미술' 등의 활동을 줄이거나 없애는 고등학교가 점점 늘고 있다. '특별활동을 줄이는 학교는 당연히 가난한 아이들이 주로 다니는 곳이다'.

하버드대학교의 정치학자인 로버트 퍼트남(Robert Putnam)과 그의 공동연구자들은 부유한 미국 고등학생의 경우 지난 수십 년 동안 높은 특별활동 참여율은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Duckworth). 학창시절, 즉 청소년시기의 특별활동 참여는 미래의 성공을

예측하는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선행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사회 경제적 사정으로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참여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그것의 척도가 낮게 나타날 수 있다. Jencks는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자녀의 학업성취 사이에 $r=.55$ 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연구결과를 정리하였으며(Jencks, 1972, 김신일, 1985. 재인용)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한 사회계층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경로로 지적된 것은 소망수준, 문화실조³⁾(cultural deprivation), 언어 및 상호작용(interaction)이었다(김신일, 1985).

Coleman은 그의 연구에서 학생의 성취와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장 의미 있는 요인은 가정적 요소로 사회경제적 지위라고 하였다. 그것 성장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별화되는 현상을 보일 것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사회경제적 지위가 불리한 학생들은 유리한 학생들에 비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약하며, 노력보다 행운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고 하였다(이혜민, 2016).

교육사회학 연구에서 계층을 분류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수입(income), 또는 소득(earnings), 직업적 순위(occupational ranking), 학력(educational level) 등을 계량화하여 산출하는 사회경제적지위(socio-economic status; SES)가 된 다라고 하였다(오욱환, 2003).

3) 문화적 요인

문화란 심리적, 물질적으로 세대간 전승되어 표현되는 고유한 생활 체계라고 할 수 있다(홍영운, 2017). 문화는 우리 자신을, 우리 주위의 세상을 의미 있게 만드는 방식이며 우리 자신에 대한 의미와 서로에 대한 의미, 세상에 대한 의미를 나누고 서로 맞춰보는 실천행위이다(유영민, 2011). 문화란 일정한 사회집단이 장기간에 걸쳐 공동으로 형성되어 있는 사고, 감정, 특성, 인성, 행동양식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구평희, 2003).

문화의 개념에 대한 학자간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개념은 생활양식으로서 문화개념이다(미디어와 문화, 2018; 한상복 외, 1985; 한국청소년개발원, 2005).

또한 문화의 개념은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 경계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며 사람들을 서로 구분 짓는 지리적 또는 정치적 경계를 의미 하지도 않는다, 문화의 핵심은 한 집단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규범과 가치이다(Duckworth).

그것이 장기적인 목표에 대한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끈기를 설명하는 것이라라고 할 때 그것 형성요인을 가정의 문화적 요인과 상관을 짓는다면 가정의 전통적 생활양식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남궁 명희, 2010). 우리나라의 선비정신이라고 한다면 청렴결백(integrity)하여 불의에 굴하지 않으며 대의명분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도 끊임없이 학문을 탐구하는 학자 정신을 이르는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오준영, 2017). 이러한 선비정신은 어느 특정한 세대(generation)의 짧은 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문화는 아닐 것이며 여러 세대를 거듭하면서 전승 발전되어 나라의 고유한 전통문화가 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정신문화로 대표되는 선비정신은 겉으로는 일개(only) 국가의 전통 문화인 것 같지만 안으로 들어가보면 한 가문의 전통, 즉 한 집안(family)의 문화가 국가적으로 승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이문자, 2009). 이렇듯 한 가정 또는 한 집안의 문화는 작게는 단순 문중의 전통에 그치고 말겠지만 오랜 기간동안 계승발전 되어 승화된다면 국가 또는 민족을 대표하는 문화로 변화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이 한 국가를 대표하는 전통문화도 결국은 한 가족, 즉 한 가문의 전통에서부

³⁾ 문화실조라는 개념은 1960년대 중반 이후 교육학자들과 심리학자들에 의하여 널리 받아들여졌다(Hurn, 1978). 이들은 문화실조론의 바탕이 되는 기본 가정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었다. 브룩스(Brooks, 1966: 516-517)는 문화실조 아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문화실조 아동은 마땅히 자기 것이 되었어야 하는 풍부한 경험들로부터 분리된 아동을 말한다. 오욱환, 『교육사회학의 이해와 탐구』, (과주: 교육과학사, 2015), pp. 277-297.

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대의 가족문화는 핵가족화 및 다양한 매스미디어(mass media)의 출현으로 전통화 되어 지기는 쉽지 않아 보이며 핵가족을 중심으로 한 단순 가족문화에 그치고 마는 경향이다(김민정, 2018). 특히 다양한 매스미디어 또는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의 영향으로 오랜 기간 동안 전승되기보다는 그때그때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변화되어가는 것이 현대의 가족문화라고 할 수 있다(김민정, 2018; 석승혜, 2013). 이렇듯 가정의 문화는 시대의 환경적 배경에 따라 개인의 생활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한 나라의 대표문화로 승화될 수 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종속변인인 그릇의 성장에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아직까지 국내의 경우 가정문화를 그릇과 관련하여 발표된 선행연구 등은 확인할 수가 없었다.

4) 부모의 양육태도 요인

부모양육태도 개념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내적, 외적, 태도나 행동을 총칭하는 개념이다(김희수, 2005; 임종필, 2016). 부모의 양육태도는 심리적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기의 성격형성과 사회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도미향, 채경선, 2006). 부모양육태도는 자녀들의 심리적 인지적 육체적 성장발달에 결정적 역할을 하며(문정례, 2016)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아존중감이나 자기효능감에도 영향을 주어 온정적 보살핌은 자녀의 효능감을 높여주며 반대로 권위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존감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강다현, 2018; 강지은, 2018; 임지영, 2018).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사회, 문화적 양식으로서 부모가 자녀들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교육하고 훈육하는 태도이며(하경민, 2018) 부모행동의 반응태도와 경향성으로 정의되기도 한다(Fishbein, 1975; 정숙희, 2016).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부모의 돌봄적 양육태도가 개방적 의사소통과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었으며(김용국, 2010) 부모의 애정, 자율, 성취, 합리적 양육태도는 개방적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건강한 의사소통은 가족관계에서 감정을 정화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녀의 사회화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으며(신미숙, 2010) 부모의 양육태도란? 가정내에서 이루어지는 자녀의 특성과 태도, 가치체계 등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태도로서 부모의 관찰 가능한 행동과 자녀의 인식, 행동, 태도에 대한 부모의 반응 형태로 표명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송현주, 황혜련, 2013).

그렇지만 국내의 선행연구 등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그릇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Levy & Steele(2011, 유영주, 2018, 재인용)의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방식은 그릇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심리학자 래리 스타인버그(Larry Steinberg, 1991, Duckworth)의 연구에 의하면 성(gender)이나 민족, 사회계층, 부모의 결혼 상태에 상관없이 다정하고 자녀를 존중하며 요구를 많이 하는 부모를 둔 청소년들이 학교 성적이 좋고 독립적이며 불안과 우울 증상이 적고 비행에 가담할 가능성도 낮았다. 또한 심리학자이며 육아 전문가인 낸시 달링(Nancy Daling, 1997)은 부모의 양육방식평가를 위한 다음과 같은 문항을 개발하였다(표 II-3).

<표 II-3> 부모의 양육 방식 평가

지 지 · 온 정	내게 문제가 생긴다면 부모님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다.
	부모님은 시간을 내서 나와 대화한다.
	부모님과 나는 즐거운 활동을 함께한다.
지 지 · 존 중	부모님은 내가 고민을 의논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부모님은 내게 잘 했다는 칭찬을 한 적이 거의 없다.
	부모님은 나도 나만의 관점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
지 지 · 요 구	부모님은 당신들의 생각이 옳으므로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부모님은 내 사생활을 존중해준다.
	부모님은 내게 많은 자유를 준다.
지 지 · 요 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부모님이 주로 결정한다.
	부모님은 내가 가족의 규칙을 반드시 지키기를 기대한다.
	부모님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둔다.
지 지 · 요 구	부모님은 내가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준다.
	부모님은 내가 잘못된 일이 있을 때 벌을 주지 않는다.
	부모님은 힘든 일이라 해도 내가 최선을 다하기를 기대한다.

출처: Duckworth, 2017

자녀들은 부모의 지지와 존중, 높은 기대 속에서 성장할 때 그들의 삶에 유익한 점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Larry Steinberg는 2001년 미국 청소년연구학회의 회장연설에서 ‘양육방식에 관한 연구는 이제 중단해도 된다’ 라고 선언했다. 현명한 양육방식의 이점을 입증해주는 증거가 충분히 입증되었으므로 이제 학자들은 한 차원 더 높은 연구를 할 것을 주문하였다고 볼 수 있다.

현명한 양육방식의 부모들은 자녀의 심리적 욕구를 정확히 판단한다. 그들은 자녀가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려면 사랑, 한계, 자유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들의 권위는 권력이 아니라 지식과 지혜를 바탕으로 한다. 방임적 양육방식의 부모는 자녀를 방치하는 전형적인 경우이다. 자녀에게 유해한 정서적 환경을 조성하지만 투지가 강한 사람의 부모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양육방식이다. 독재적 양육방식은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에 대한 요구는 많이 하는 반면 자녀를 지지해 주지 않는다. 반면에 부모는 자녀를 지지해 줄 뿐 요구를 하지 않는 유형은 허용적 양육방식이 된다(Duckworth).

이상과 같은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취합하면 합리적이고 개방적이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존감을 상승시키며 성취의욕을 고양(uptlift)시키는 결과를 가져옴을 알 수 있다.

5. 학습환경 변인과 그것의 관계

가. 학습환경의 개념

교육심리학 측면에서 교육이란 인간행동에 계획된 변화를 초래하는 의식적 과정이다라고 정의한다(정범모, 1981). 또한 심리학이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면 학습은 행동의 변화에 초점을 둔 심리학의 한 영역이 된다. 그러나 행동에 있어서의 모든 변화가 학습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학습이란 경험 또는 연습의 결과로 인한 행동의 변화이다. 비록 경험과 연습에 의한 행동의 변화라고 하지만 그 변화된 행동이 비교적 영속성이 있어야 학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시적인 피로 또는 약물, 질환 등에 의한 행동의 변화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거나 제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습이란 경험과 연습에 의하여 행동에 영속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과정이다(이성진 외, 2013).

Murray(1938)는 학교환경의 심리학적 접근의 체계적 연구에서 인간행동을 유기체와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보고 유기체의 중심개념을 욕구로 파악하고 환경의 중심개념을 압력으로 파악했는데 이러한 욕구와 압력의 구상은 Lewin(1938)의 $B=F(P, E)$ 라는 행동방정식의 견해와 상통한다. 즉, Lewin은 인간행동(B)을 인간(P)과 환경(E)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고 있는데(박정근, 1999), Storn(1970)은 이 공식을 근간으로 하여 인간은 욕구, 환경은 압력이라는 개념으로 대치하여 인간행동을 설명한다. Storn은 인간에 대한 환경적 자극을 압력으로 보며 환경압력은 욕구에 대응되는 외부환경의 자극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압력이란 각 개인이 직면하는 상황에 대하여 갖는 독자적이고 사적인 인식으로 해석한다.

‘압력의 개념은 어떤 욕구에서는 장애가 되는 조건을 다른 욕구에서는 그 표현을 촉진하는 자극이 되는 것을 아울러 포함한다. 이 조건과 자극들이 보통 한 기관, 한 조직(학교)의 풍토분위기를 조성한다. 결과적으로 압력이란 개인들의 집합이 그들의 상호대인관계적 처리장면에서 나타내는 특징적 행동의 위계적 분류 체계라고 정의된다. 이 정의에 의하면 한 사람의 타인에 대한 욕구는 상대방에게 압력으로 작용한다. 학교장면에서 학생에 대한 압력은 주로 교사와 급우의 기대에 의해서 생긴다고 볼 수 있다.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들은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는 서로에게 어떤 기대를 갖는다. 교사는 학생에게 능력이 있는 자로서, 존경받는 지도자로서 행동해야 된다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학생 역시 교사의 기대가 압력으로 작용하여 부합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이치영, 1980.).’

김창민(2013), 서다숨(2014) 등은 학습환경을 학습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심리정서적 조건 및 사회 문화적 상황 등의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즉, 학습환경이란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체계이론의 미시체계에 속하는 학교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교육과정 및 학교-학습자의 인적, 물적 관계를 아우르는 광의의 개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있어 개인의 성격유형, 가족관계, 또래요인, 학교요인 등 생태학적 체계의 영향은 장기적인 목적의 성공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그것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한정옥, 2017). 성격 및 가족체계는 선천적으로 형성된 요인이 되지만 학습환경 변인의 또래요인, 학교요인 등은 후천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선천적 환경 즉, 타고난 고유환경이라도 사후적 요인에 의하여 변화될 수 있는 것이 개인의 성격(personality)이며 가족체계 환경의 영향력도 고유불변관계가 아니라 바람직한 관계로 승화가 가능한 것이 학습에 의한 변화라고 선행연구자(권석만, 2015; 민윤기 외, 2011; Duckworth)들이 밝히고 있다.

일반적인 학습 환경 변인이라 다양한 학교환경 일체가 포함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렇지만 본 연구는 유기체, 즉 학습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체계환경의 미시체계에 속하는 학교풍토, 학급풍토 및 또래관계의 질에 국한하여 학습환경의 변인으로 규정하고 학습환경과 그것 척도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고자 한다.

1) 학교풍토

풍토(natural)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지역의 기후(climate)와 토지의 상태, 어떤 일의 바탕이 되는 제도나 조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표준국어사전). 또한 풍토는 지리학 용어로 어떤 지역의 토지와 기후의 상태를 뜻하며 이는 인간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박교원, 1997) 집안에 가풍(family tradition)이 있듯이 어떤 조직에도 다른 조직

과 차별화된 구성원들만의 고유한 성격이나 분위기가 있을 수 있는 바 이를 조직풍토, 학교의 경우 학교풍토(school climate)로 정의할 수 있다(남정걸, 1997). 또한 학교환경을 학교성원 상호간의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의식적 무의식적인 것에 대한 심리적 거리, 유대관계, 자극관계를 학교의 문화풍토라고 정의하였다(왕기향, 1975).

한편 학교풍토를 사회학적 인간의 행동이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라는 전제 하에 사회적 풍토라는 개념을 도입한 예도 있었다(Lewin, 1936, 1948, 1951,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학교의 인지적 영역의 학업성취가 학교교육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학생들은 학교생활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사, 교우와의 상호작용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및 성취에 대한 내적 동기와 사회성 등이 발달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박현정, 2008).

박홍원(2016)은 학교환경에 의하여 형성된 학습에 대한 내재적 동기와 자아개념 등의 정의적 특성은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향상된 학업 능력이 또다시 정서적 능력을 긍정화 내지 안정화시키는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고 정의하였다. 또한 학교풍토를 교육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학교 내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규범, 기대, 가치에 대한 지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박영도, 2017).

학교풍토를 학교조직의 개성에 초점을 두는 접근 방법과 구성원들 간의 상호관계에 초점을 두는 방법의 두 가지 차원으로 분류 가능하다고 정의한다.

개성에 초점을 두는 것은 개별 특징들이 하나로 모여 한 사람의 인성을 구성하듯이 생애, 환경, 사회체제 및 문화의 지속적인 특징들이 형상화되어 구성된 풍토를 의미한다(유낙주, 1993).

그리고 구성원들 간의 상호관계에 초점을 둔다는 것은 한 조직의 구성원들은 다른 조직과 차별화된 특성과 문화를 공유함으로써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반대로 조직구성원들은 그 영향을 받음으로써 학교의 고유풍토가 만들어지는 것이다(Tagiuri, 1968, Forehand & Gilmer, 1964, 빈태선, 2014. 재인용).

또한 학교풍토를 다른 학교와 차별화된 그 학교만이 가지는 고유한 분위기로 교사 학생을 비롯한 학교의 구성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내부의 다양한 특성과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직의 독특한 속성으로써 교직원들의 내적 특성에 영향을 주며 조직원 간의 상호관계를 통해서 형성, 공유, 발전된다고 정의하였다(빈태선, 2014; 서상진, 2004; 배용득, 2004).

지금까지 있었던 학교풍토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들의 논지를 요약해보면 학교란? 인지적 비인지적 영역의 성취를 위하여 물질적 인적 자산을 바탕으로 조직적으로 구성된 임의적 기관이지만 학교-교장-교사-학생 등 구성원 상호간 관계적 작용의 누적된 효과는 유, 무형의 형태, 즉 역사와 전통으로 외부로 드러나게 된다. 이러한 학교환경의 고유한 분위기를 학교문화 또는 학교풍토라고 할 수 있겠다.

2) 학급풍토

박용현(1983)은 학교풍토를 학교 구성원들 상호 간의 인과관계에 의하여 조성되는 의식적, 무의식적인 것에 대한 심리적 유대 현상이라고 하였다. 반면에 학급환경(class environment), 즉 학급풍토는 학교 구성의 기본 단위인 학급내에서 교사-제자, 급우-급우들 간의 다양한 형태의 인지적, 정의적 교육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교사의 지도성과 학생들의 고유성격, 교사-학생관계, 급우-급우관계, 즉 또래 관계가 작용하여 학급고유의 특성이 발현되는 것을 말한다(박교원, 1977; 심연흠, 2011).

또한 학급풍토는 학급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심리, 정서적 유대현상 또는 분위기로써 학생들에게 긍정적 학교적응과 관계형성에 의한 사회적 맥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학업성취를 경험함으로써 자기효능감과 학업 신념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하였다(강유선, 2016; 최현주 외, 2015).

어떤 조직이든 조직 본래의 고유한 성격이 있듯이 학교와 학급 또한 다른 학급과 차별

되어지는 특징적인 풍토가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한 학급의 고유풍토는 다른 학급과 차별성을 나타내며 소속원의 행동과 학업성취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학급에서 교사가 학생들의 인지적 성취를 목표로 하면 통제적 풍토가 형성될 수 있으며 개방적 교수-지도 방법을 지향하면 그 학급은 민주적 풍토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그러나 특별히 통제도 하지 않으며 민주적 교수-학습 방법에 의한 자율적 학습분위기도 시도하지 않고 방관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바람직한 학급풍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교사의 방임적 풍토 조성에 의한 교육의 비효율화 학급이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Lewin, 1969; 박정근, 1999).

반면에 초등학교 상급학생(4,5,6)들을 상대로한 연구이긴 하지만 최현주 외(2015)는 따뜻하고 지지적인 분위기에서 아동들의 정서적 요구를 받아주는데 익숙한 교사의 학급에서는 아동들은 심리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교사 및 친구관계, 성취감, 자기효능감, 학습에서의 즐거움, 환경에 대한 긍정적 인식, 심리적 안정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았다.

Larrivee(1992)는 학급풍토를 아동들이 학급활동이나 생활 속에서 지각하고 경험하는 기본적 욕구로 소속과 인정, 사랑, 애정, 힘과 조정, 만족감과 즐거움 등을 채워 줄 수 있는 교수-학습 분위기 및 교사-학생, 급우-급우관계 등 학급의 물리적, 인지적, 정서적 환경에 대한 느낌이라고 하였다. 학급내의 인간관계와 환경압력에 의해 조성되는 학급풍토는 학생의 인지적 영역은 물론 비인지적 영역에도 영향을 미친다.

학급내의 학습환경은 학생의 학업성취, 학습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자아개념이나 자존감 획득에도 유의미한 관계가 성립한다. 학급풍토와 자율변인은 학업성취와 긍정적 상관이 있으며 학생의 시험불안과도 관련이 된다. 또한 학생의 학교 생활적응에도 영향을 주어 집단 괴롭힘이나 학교폭력이 증감되는 변인이 될 수 있다(이영옥, 2010).

학급풍토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교사는 교수-학습의 지도방법에 따라 학급풍토가 긍정적일 수도 있으며 반대로 부정적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학급내의 인간관계와 환경압력에 의해 조성되는 학급풍토는 학생의 정서적 상태나 학습상태만큼 학생의 개인적 성장에 영향을 끼친다(Stuart & Rosenfeld, 1994).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들의 학급풍토에 대한 정의를 요약하면 학급풍토란? 학교풍토가 이루어지는 기본 단위로서 친밀한 학급풍토는 구성원들에게 인지적 비인지적으로 영향을 주어 자존감 획득에 기여하며 학교생활 적응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교사에 의한 권위적 또는 방임적 학급풍토는 시험불안과 집단 괴롭힘, 학교폭력 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청소년기 또래관계

가) 청소년의 개념

청소년이란 청년과 소년을 함께 지칭하는 용어로 영어의 'Adolescent' & 'Youth'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어원적으로 'Adolescent'는 라틴어의 '성장하다(grow up)' 혹은 '성숙하다(come to maturity)'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안이정, 2018). 인간발달단계에서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정신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면서 자아에 대한 개념이 성숙하는 시기로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단계로 지칭된다(이해주, 이미리, 모경환, 2006).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을 만9세부터 24세까지로 규정하고 있다(청소년기본법 제3조, 2017.7.26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또한 청소년기는 사춘기에서 시작하여 다양한 성숙과정을 거쳐 사회 문화적인 한 사람의 독립적인 성인으로 인정되는 성인기 이전까지의 시기를 의미한다(한상철 외, 1988; 황유진, 2010).

청소년기는 부모의 보호속에 성장하던 아동기에서 성인으로 나가는 중간단계로서 질풍노도의 시기(김혜은, 2018; G. S. Hall, 1904, 한국청소년개발원, 2004), 과도기, 제2의 반

항기, 제2의 탄생기, 심리적 이유기(김숙향, 2017; 류수현, 2018; 이보미, 2010) 등이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갈등과 혼란을 경험하며 자아정체감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이다.

나) 또래관계의 개념

청소년기는 또래관계를 부모-가족 이상으로 소중한 존재로 여긴다. 또래란 나이와 발달의 수준이 비슷하며 일상적으로 상호작용을 함께 하는 대상을 말한다(김지혜, 2017; 이여미, 2014; 전제일, 천수혜, 2008). 또래집단은 친근하고 동등한 지위를 가진 구성원들의 행동상의 복잡성 수준이 비슷한 가운데 상호작용을 하는 비형식적이고 사회적 공감에 의한 결합이라고 정의하였다(Hartup, 1993, 정숙희). 또래집단은 청소년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생태적 맥락으로서 집단내의 또래관계는 청소년기 이후의 사회성 및 성격발달을 연결하는 주요한 고리가 된다(김원정, 2004). 또래관계가 원만한 청소년은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적응을 잘하는 반면에 또래관계의 부정적 경험은 성장하였을 때 정서적 불안정이 유발됨으로써 사회적 부적응을 가져온다(이미순, 1995; Bagwell, Newcomb, & Bukowski, 1988; Hecht et al., 1998; Kochenderfer & Ladd, 1996, 김원정, 2004. 재인용). 한편 과도기적 시기에 공통의 문제를 접하는 또래집단은 사회적 정서적 기반으로 청소년기의 스트레스 등을 대처하는 데 심리적 안정감과 사회적 지지를 제공한다. 이 시기는 또래관계를 통해 사회적 기술을 배우고 정서적 사회적 지원을 받으며 자아정체감을 획득하게 되고 자기인식과 자아개념을 발달시키게 된다(김지영, 2008; 김혜은, 2018; Hartup, 1983).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청소년기의 태도, 신념 및 가치관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정옥분, 2003; Erwin, 1998), 이들은 학교와 학원이라는 장면에서 대다수의 시간을 함께 지내기 때문에 이 시기의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청소년의 발달과 정서적 적응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장관방, 2014). 문수경(2004)은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체계이론에 의한 미시체계에 속한 또래관계는 또래의 지지, 친구의 수, 또래지향 정도 등의 변인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밝히고 있다. 콜맨(1964) 역시 또래환경으로부터 받은 영향은 성인이 된 후의 삶에도 지속된 다라고 주장하였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울산광역시 교육청 관내 일반계고등학교 남, 여 1학년 학생 600명을 무작위로, 2018년 3월14일 1차 300명, 3월 21일 2차 300명, 합계600명을 자기보고식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다만 표본조사의 균형성을 찾기 위하여 시 중심지역 내 2개 고등학교 학생300명과 외곽지역의 2개 고등학교 학생300명을 층화표집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1, 2차 조사결과 일부 무성의한 답안지가 다수 포함되었으므로 5월2일 3차 130명을 추가 설문하여 최종 591명을 본 연구의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표 Ⅲ-1> 조사대상 학교 및 학생 수

학교(일반계고등학교)	학교 수	인원(남,여)
시 중심지역	2	295
시 외곽지역	2	296
합계	4	591

2. 대상자 선정에 대한 설명

연구의 대상자를 고등학교 1학년으로 국한한 것은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대부분은 16~17세의 청소년이다. 이시기는 형식적 조작기로서 논리적, 추상적 사고

가 가능함으로써 주어진 설문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Marking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으며 또한 1학년 학생들은 다른 학년에 비해 비교적 입시 등과 같은 학사일정에 부담을 덜 가져도 될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남, 여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자기보고형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3.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할 도구로서는 그릿척도, 성격5요인척도, 부모-자녀관계척도, 가족의 문화적 척도, 부모의 양육태도척도, 또래관계의 질 척도, 학교풍토척도, 학급풍토척도 그리고 일반적 특성(인구통계학적 문항, 가정의 경제적 환경에 대한 문항, 부모님의 직업과 학력에 대한 문항 등)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였다.

가. 그릿척도

그릿척도는 Duckworth와 그의 동료들(2007)이 개발한 Original Grit Scale(Grit-O)를 국내의 연구 환경에 맞도록 손영우, 이수란(2013)등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그릿척도는 관심의 지속성 및 노력의 꾸준함을 측정하는 하위 변인으로 각각 6개,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 3, 5, 7, 10, 12번 문항은 역 채점 문항이다. 5점 리커트(Likert)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를 5점, ‘그렇다 아니다’를 4점, ‘그런 편이다’를 3점, ‘그렇다’를 2점 ‘매우 그렇다’를 1점으로 채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열정과 투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73 ~ .83의 범위로 보고되고 있다(이수란, 2014; Duckworth & Quinn, 2009).

<표 III-2> 그릿(Grit)척도의 문항구성도와 신뢰도 관계(*역 채점 문항)

개별 요인	문항 번호	문항 수	신뢰도(a)
관심의 지속성	1*, 3* 5*, 7*, 10*, 12*	6	.72
꾸준한 노력	2, 4, 6, 8, 9, 11	6	.70
전체	1~12	12	.73

나. 성격5요인 척도

McCrae와 Costa(1989)의 NEO-PI-R과 Goldberg(1999)의 IPIP(International Personality Item Pool)는 성격 5요인을 측정하는데 대표적인 검사로 사용된다. NEO-PI-R은 성격5요인과 각 요인에 관한 6개의 하위요인을 측정하는데 24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에 IPIP는 하위요인에 대한 측정 없이 각 요인 당 10개 문항씩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IPIP를 사용하는 연구들에 있어서 비록 적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Cronbach's a 계수가 .70이상으로 양호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성격5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Goldberg의 IPIP(International Personality Item Pool)를 유태용, 이기범 및 Ashton(2004) 등이 번안하고 이영란(2006), 오은주(2012) 등이 사용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IPIP는 신경증(Neuroticism), 외향성(Extroversion), 개방성(Openness), 친화성(Agreeableness), 성실성(Conscientiousness) 등의 다섯가지 요인으로 측정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약간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리커트(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범위는 5개 요인마다 최소값 5점, 최대값 5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 성격요인의 특성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III-3> IPIP 하위영역 및 신뢰도 계수(* 역 채점)

구성내용	문항 번호	Cronbach's a
신경증	1*, 3*, 4*, 12*, 21*, 28*, 31*, 37*, 38*, 41	.840
외향성	2, 8, 13, 17, 22, 26*, 32*, 36*, 44*, 49*	.851

개방성	5, 9, 14, 18, 23, 27, 33, 39*, 43*, 47*	.627
친화성	6, 10, 15, 19, 24, 29, 34*, 40*, 46*, 48*	.805
성실성	7, 11, 16, 20, 25, 30, 35*, 42*, 45*, 50*	.775

다. 부모-자녀관계 척도

그릇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부모-자녀관계와 가족의 문화적 요인은 이혜민(2017)이 제작 사용한 내용 중 본 연구에 맞는 부분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였다. 부모-자녀 관계 척도는 ‘우리 가족은 관계가 좋은 편이다.’ 등 전체 12문항으로 4점 리커트(Likert)척도에 의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a)는 .938으로 나타났다.

라. 가족의 문화적 척도

가족의 문화적 요인은 DiMaggio(1982)의 연구에서 문화자본의 측정을 위해 활용한 자료를 이혜민(2017)이 응용한 ‘우리 가족은 클래식 공연이나 연극 및 뮤지컬 관람을 자주한다’는 등 외, 총 5문항이며 가족의 문화란 각 가정이 보유하고 있는 도서목록, 소장 예술품, 클래식공연 및 연극관람, 대중음악, 영화 관람, 서점이나 도서관 방문 등 가족의 문화향유에 대한 양적 질적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4점 리커트(Likert)척도에 의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a)는 .727로 나타났다.

마. 부모의 양육태도 척도

부모의 양육태도는 허묘연(1999)이 개발하여 타당도를 검증한 척도이다. 이혜민(2017)이 일부 재구성하여 사용한 내용을 본연구에서 사용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척도는 ‘우리 부모님은 공부하는 시간, 방법 등은 내가 알아서 하도록 맡기신다, 등의 ‘자율적’, ‘성취지향적’, ‘긍정적’, ‘합리적’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5문항씩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리커트(Likert)척도에 의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이다.

<표 III-4> 부모의 양육태도 척도의 문항구성도와 신뢰도 관계

구성내용	문항 번호	문항 수	신뢰도(a)
자율적	1,2,3,4,5	5	.863
성취지향적	6,7,8,9,10	5	.782
긍정적	11,12,13,14,15	5	.915
합리적	16,17,18,19,20	5	.894

바. 또래관계의 질 척도

본 연구에서는 또래관계의 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Parker & Asher(1993) 등의 연구를 참고로 Furman과 Buhrmester(1985)의 NRI(Network of Relationships Inventory)항목 중 또래 간에 보이는 특성만을 추출하여 이를 번안, 수정하였으며 또한 Parker와 Asher(1993)의 연구, Ladd와 Kochenderfer(1996)의 연구를 근거로 또래관계에서의 질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요인들을 추론하고 이를 토대로 문항들을 보완한 김진경(2002)의 선행연구를 사용한 이보미(2010)의 또래관계 질 척도를 본 연구에서도 인용하였다.

총 40문항이며 2개의 하위영역인 긍정적, 부정적 또래관계 질로 구성되어 있다. 5점 리커트(Likert)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별로 그렇지 않다’를 2점, ‘가끔 그렇다’를 3점, ‘대체로 그렇다’를 4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채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관계 질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하위요인별 문항 및 신뢰도는 <표 III-5>과 같다.

<표 III-5> 또래관계 질 척도의 하위요인과 문항구성 및 신뢰도(* 역 채점)

하위 요인	문항 구성	Cronbach's a
긍정적 요인(우의, 상호친밀, 공감대, 정서적 사회적지지, 갈등의 해결, 인기, 또래관계(만족))	1, 3, 5, 8, 9, 10, 12, 13, 14, 17, 18, 20, 22, 25, 26, 27, 30, 32, 35, 36, 39	.937
부정적 요인(갈등과 대립, 일방적 주도, 철회, 고립, 무시, 또래관계 불만족)	2*, 4*, 6*, 7*, 11*, 15*, 16*, 19*, 21*, 23*, 24*, 28*, 29*, 31*, 33*, 34*, 37*, 38*, 40*	.938
전체	40문항	.941

사. 학교풍토 척도

학교풍토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교사의 입장에서 이루어졌으며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학교풍토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이혜민(2017)이 사용한 척도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내용은 ‘우리학교는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한다.’ 등 8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4점 리커드(Likert)척도에 의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III-6> 학교풍토 척도의 문항구성도와 신뢰도 관계

구성내용	문항 번호	문항 수	신뢰도(a)
자율	1,2,3	3	.750
통제	4,5	2	.794
교육	6,7,8	3	.793

아. 학급풍토 척도

학생들이 지각한 학급풍토를 알아보기 위해 김창걸(1985)이 제작한 학급풍토 측정 도구를 이경희(1996)가 재 수정하여 사용한 것을 이영옥(2010)이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영옥이 사용한 척도를 인용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약간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리커드(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표 III-7> 학급풍토 척도의 문항구성도와 신뢰도 관계(*: 역채점)

학급풍토	영역	문항	문항 수	Cronbach's a
학생의 행동 특성	자발성	1, 2, 3, 4, 5, 6	6	.891
	추종성	7*, 8*, 9*, 10*, 11*, 12*	6	.888
	친밀성	13, 14, 15, 16, 17, 18	6	.888
	임의성	19*, 20*, 21*, 22*, 23*	5	.949
계		23	23	.903

자.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문항

본 척도는 이도경(2017), 이혜민(2016), 김지영(2008) 등이 사용한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은 성별에서부터 대상자 본인의 한 달 용돈, 부모의 학력, 직업, 월 소득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반적 특성은 기입형 문항으로 작성하였다.

<표 III-8>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문항 구성도

문항	문항
1. 성별	6. 가정의 소득
2. 형제 수	7. 가정의 경제적 수준
3. 가족 수	8. 학교 성적
4. 부모님의 연령	9. 부모님의 최종학력
5. 본인의 용돈	10. 부모님의 직업

4. 분석방법

기본적으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에 의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빈도, 백분율을 확인한 후 각 검사 도구의 요인 별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둘째, 그것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유기체환경의 성격5요인, 가정환경의 부모-자녀관계, 가족문화, 부모의 양육태도, 학습환경의 학교풍토, 학급풍토, 또래관계 등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대상 학생들의 성별, 가정의 월소득, 부모의 최종학력 및 학교성적에 따라 그것에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T 검증과 F 검증,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그것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유기체환경 변인, 가정환경 변인, 학습환경 변인은 실제 그것과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부모의 일반적인 특성은 아래의 <표 III-9>, <표 III-10>와 같다. <표 III-9>에 나타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대상자 중 남학생은 221명(37.4%), 여학생은 370명(62.6%)이었다. 조사대상자 중 형제자매 수는 2명인 경우가 244명(41.0%)으로 가장 많았다. 출생순위는 둘째가 204명(34.3%)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첫째가 191명(32.1%)으로 많았다. 연구대상자를 포함한 가족 수는 4명인 경우가 373명(62.7%), 그 다음으로는 5명인 경우가 98명(16.5%)으로 많았다. 또한 연구대상자는 한 달 용돈을 3만원 이상에서 5만원 미만을 쓰는 경우가 177명(29.7%)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5만원 이상 7만원 미만을 쓰는 경우는 148명(24.9%)으로 대부분이 한 달에 3만원에서 7만원 정도의 용돈을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계소득을 살펴보면 한 달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가 192명(32.3%),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가 97명(16.3%),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인 경우가 86명(14.5%),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경우는 70명(11.8%)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는 자신의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17명(70.1%)으로 가장 많았고, 부유한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01명(17.0%)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학교성적은 중위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37명(39.8%)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중상위권으로 응답한 경우가 121명(20.3%)으로 많았다.

<표 III-9>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 = 591)

특성	구분	N (%)
성별	남학생	221 (37.4%)
	여학생	370 (62.6%)
총형제자매 수	외동	24 (4.0%)
	1명	214 (36.2%)
	2명	244 (41.0%)
	3명	66 (11.1%)
	4명	7 (1.2%)
	5명이상	3 (0.5%)
출생순위	첫째	191 (32.3%)
	둘째	204 (34.5%)
	셋째	22 (3.7%)
	넷째	5 (0.8%)
	막내	45 (7.6%)

	외동	60 (10.1%)
가족 수	2명	6 (1.0%)
	3명	90 (15.2%)
	4명	373 (63%)
	5명	98 (16.6%)
	6명	14 (2.4%)
	7명	5 (0.8%)
	8명 이상	1 (0.2%)
	1만원 미만	47 (8%)
용돈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	91 (15.4%)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	177 (30%)
	5만원 이상 7만원 미만	148 (25%)
	7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50 (8.4%)
	10만원 이상	58 (9.8%)
가계소득	100만원 미만	6 (1.0%)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 (3.4%)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70 (11.8%)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86 (14.5%)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97 (16.4%)
	500만원 이상	192 (32.5%)
경제적 수준	매우 어렵다	2 (0.3%)
	어려운 편이다	33 (5.5%)
	보통이다	417 (70.6%)
	부유한 편이다	101 (17.1%)
	매우 부유하다	26 (4.4%)
학교성적	상위 (전교석차 20% 미만)	88 (14.9%)
	중상위 (전교석차 20-40%)	121 (20.5%)
	중위 (전교석차 40-60%)	237 (40.1%)
	중하위 (전교석차 60-80%)	108 (18.3%)
	하위 (전교석차 80% 이상)	16 (2.7%)

2. 연구대상자 부모의 일반적 특성

<표 III-10>을 통해 연구대상자 부모의 일반적 특성 중 아버지의 연령은 45세 이상 50세 미만인 경우가 297명(49.9%)이고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경우가 174명(29.2%)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연령은 45세 이상 50세 미만인 경우가 288명(48.4%)이고 40세 이상 45세 미만인 경우가 181명(30.4%)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아버지의 경우 대졸인 경우가 222명(37.3%)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인 경우가 206명(34.6%)으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에는 고졸인 경우가 223명(37.5%)으로 가장 많았고, 대졸인 경우가 209명(35.1%)으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직업은 아버지의 경우 생산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184명(30.9%)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사무직이 114명(19.2%)이었다. 어머니의 경우는 무직 또는 주부인 경우가 192명(32.3%)으로 가장 많았고, 판매서비스직이 104명(17.5%)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표 III-10> 연구대상자 부모의 일반적 특성

특성	구분	아버지 N(%)	어머니 N(%)
연령	39세 이하	5 (0.8%)	13 (2.2%)
	40세 이상 45세 미만	49 (8.3%)	181 (30.6%)
	45세 이상 50세 미만	297 (50.3%)	288 (48.7%)
	50세 이상 55세 미만	174 (29.4%)	71 (12%)
	55세 이상 60세 미만	32 (5.4%)	10 (1.7%)

교육수준	60세 이상	7 (1.2%)	2 (0.3%)
	중졸 이하	7 (1.2%)	7 (1.1%)
	고졸	206 (34.9%)	223 (37.7%)
	전문대졸	51 (8.6%)	50 (8.5%)
	대졸	222 (37.6%)	209 (35.4%)
	대학원 이상	39 (6.6%)	35 (5.9%)
직업	농업, 어업, 축산업	8 (1.3%)	4 (0.7%)
	생산직	184 (30.9%)	29 (4.9%)
	숙련공	64 (10.8%)	7 (1.2%)
	판매서비스직	47 (7.9%)	104 (17.6%)
	사무직	114 (19.3%)	60 (10.2%)
	행정관리직	65 (11.0%)	23 (3.9%)
	전문직	36 (6.1%)	81 (13.7%)
	무직 및 주부	1 (0.2%)	192 (32.5%)

3.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그릿, 유기체 변인의 성격5요인, 가정환경 변인 중 부모-자녀 관계, 가족문화, 부모의 양육태도의 하위요인 및 학습환경 변인인 학교풍토, 학급풍토, 또래관계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의 <표 III-11>과 같다.

먼저 종속변인인 그릿의 하위 요인의 경우, 관심의 지속성의 평균은 3.007, 표준편차는 .679였고, 꾸준한 노력의 평균은 3.372, 표준편차는 .775였다.

성격5요인과 학교풍토의 경우 하위요인 각각의 평균 및 표준편차 등을 <표 III-11>에서 제시하였다. 그 밖에 부모-자녀관계의 평균은 3.383, 표준편차는 .572였으며 가족문화의 평균은 2.545, 표준편차는 .614였다.

부모의 양육태도의 하위 요인 중 자율적: 평균 3.361, 표준편차: .533, 성취지향적: 평균 3.190, 표준편차: .542, 긍정적: 평균 3.166, 표준편차: .678, 합리적: 평균 3.170, 표준편차 .633으로 제시되었음은 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학급풍토의 경우 평균 3.745, 표준편차는 .572였고, 또래관계의 평균은 3.835, 표준편차는 .543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각 변인의 왜도의 절댓값이 2를 넘지 않고 첨도의 절댓값이 4를 넘지 않아,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 주요 변인 기술통계 분석결과

변인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왜도	첨도
그릿	3.190	.503	1.67	5.00	.367	.648
관심의 지속성	3.007	.679	1.00	5.00	-.179	.525
꾸준한 노력	3.372	.775	1.00	5.00	.212	-.456
신경증	2.868	.710	1.00	5.00	.144	-.099
외향성	3.319	.703	1.50	5.00	.049	-.317
개방성	3.257	.473	1.80	5.00	.416	.670
친화성	3.614	.565	1.40	5.00	-.032	.152
성실성	3.358	.570	1.10	5.00	.154	.276
부모-자녀관계	3.383	.572	1.00	4.00	-.715	-.071
가족문화	2.545	.614	1.00	4.00	.134	.130
양육태도: 자율적	3.361	.533	1.40	4.00	-.388	-.497
성취지향적	3.190	.542	1.00	4.00	-.524	.440
긍정적	3.166	.678	1.00	4.00	-.741	.606
합리적	3.170	.633	1.00	4.00	-.580	.393
자율 학교풍토	2.501	.785	1.00	4.00	-.140	-.485

통제 학교풍토	2.829	.725	1.00	4.00	-.099	-.391
교육 학교풍토	2.936	.603	1.00	4.33	-.534	1.155
학급풍토	3.745	.572	2.39	5.00	.230	-.922
자발성	3.738	.733	2.00	5.00	.100	-.829
추종성	2.513	.885	1.00	5.00	.832	.524
친밀성	3.923	.713	2.17	5.00	-.014	-1.033
임의성	2.152	1.045	1.00	5.00	1.045	.528
또래관계	3.835	.543	2.35	4.90	-.065	-.874

4.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검사한 그릿 등 총 17개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의 <표 III-12>와 같다. 주요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그릿과 성격의 하위 5요인들은 모두 $p < .001$ 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증과 그릿은 $r = -.289 (p < .001)$ 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신경증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은 모두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구체적으로는 성실성 $r = .569 (p < .001)$, 개방성 $r = .394 (p < .001)$, 친화성 $r = .377 (p < .001)$, 외향성 $r = .369 (p < .001)$ 순으로 나타났다. 즉 성격5요인 중 성실성이 그릿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반면, 신경증은 상대적으로 낮은 부적 상관관계로 조사되었다.

성격의 하위5요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외향성과 친화성 $r = .623 (p < .001)$, 친화성과 성실성 $r = .587 (p < .001)$ 개방성과 성실성 $r = .535 (p < .001)$, 이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자녀관계와 가족문화는 그릿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자녀관계에 있어서는 그릿과 $r = .253 (p < .001)$, 가족문화는 그릿 $r = .184 (p < .001)$ 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부모의 양육태도 역시 그릿과 통계적으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자율적 양육태도는 그릿과 $r = .179 (p < .001)$, 성취지향적 양육태도-그릿은 $r = .242 (p < .001)$, 긍정적 양육태도-그릿 $r = .236 (p < .001)$, 합리적 양육태도-그릿은 $r = .224 (p < .001)$ 의 상관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풍토 3항목의 하위유형과 그릿은 각 유형별로 상관관계의 통계적 유의성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 학교풍토와 그릿은 $r = .205 (p < .001)$, 교육 학교풍토와 그릿은 $r = .169 (p < .001)$ 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반면에 통제 학교풍토와 그릿은 $r = -.008$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학급풍토와 그릿은 $r = .254 (p < .001)$, 또래관계와 그릿은 $r = .235 (p < .001)$ 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두 변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한편 학급풍토와 또래관계 간의 상관관계가 $r = .685 (p < .001)$ 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래의 <표 III-1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모든 변인 간의 상관관계 계수(r)가 .8을 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변인 간의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기준이 대체로 .8 이상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I-12> 주요변인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그릿	1																
2.신경증	-.289***	1															
3.외향성	.369***	-.207***	1														
4.개방성	.394***	-.070	.410***	1													
5.친화성	.377***	-.222***	.623***	.464***	1												
6.성실성	.569***	-.283***	.494***	.535***	.587***	1											
7.부모-자녀관계	.253***	-.206***	.282***	.203***	.263***	.306***	1										
8.가족문화	.184***	-.063	.207***	.329***	.183***	.236***	.383***	1									
9.자율적	.179***	-.056	.276***	.238***	.299***	.246***	.435***	.202***	1								
10.성취지향적	.242***	-.063	.291***	.308***	.306***	.330***	.515***	.340***	.488***	1							
11.긍정적	.236***	-.172***	.317***	.173***	.324***	.291***	.632***	.340***	.511***	.588***	1						
12.합리적	.224***	-.122**	.285***	.191***	.313***	.252***	.602***	.339***	.501***	.581***	.762***	1					
13.자율학교풍토	.205***	-.147***	.102*	.110**	.086*	.185***	.205***	.141**	.112**	.221***	.216***	.243***	1				
14.통제학교풍토	-.008	.009	.019	-.036	-.029	-.025	.041	.088*	.031	.110**	.126**	.092	-.121**	1			
15.교육학교풍토	.169***	-.090*	.105*	.110**	.195***	.199***	.222***	.135**	.164***	.281***	.200***	.230***	.470***	.086*	1		
16.학급풍토	.254***	-.234***	.284***	.186***	.398***	.296***	.250***	.120**	.274***	.262***	.224***	.246***	.088*	-.043	.255***	1	
17.또래관계	.235***	-.237***	.419***	.274***	.497***	.315***	.320***	.113**	.383***	.342***	.352***	.369***	.069	-.026	.175***	.685***	1

* $p < .05$ ** $p < .01$ *** $p < .001$ (9, 10, 11, 12: 부모의 양육태도)

5. 집단별 그릇의 차이 검증

가. 성별에 따른 그릇의 차이 검증

성별에 따른 그릇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음의 <표 III-13>와 같이 남학생($M=3.326$)이 여학생($M=3.115$)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준의 그릇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표 III-13> 성별에 따른 그릇의 차이 검증

종속변인	구분	<i>N</i>	<i>M</i>	<i>SD</i>	<i>t</i>	<i>p</i>
그릇	남학생	221	3.326	.505	5.048	.000
	여학생	370	3.115	.484		

나. 가정의 월소득에 따른 그릇의 차이 검증

가정의 월소득에 따른 그릇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F 검증을 실시한 결과가 다음의 <표 III-14>와 같다.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가정의 월소득에 따른 그릇에는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표 III-14> 가정의 월소득에 따른 그릇의 차이 검증

종속변인	구분	<i>N</i>	<i>M</i>	<i>SD</i>	<i>F</i>	<i>p</i>
그릇	① 100만원 미만	6	3.042	.156	1.837	.104
	② 100-200	20	3.075	.632		
	③ 200-300	70	3.086	.456		
	④ 300-400	86	3.180	.508		
	⑤ 400-500	96	3.229	.554		
	⑥ 500만원 이상	192	3.268	.510		
	전체	470	3.206	.510		

다. 아버지의 최종학력에 따른 그릇의 차이 검증

아버지의 최종학력에 따른 그릇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F 검증을 실시한 결과, 다음의 <표 III-15>와 같다.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아버지의 최종학력에 따른 그릇에는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표 III-15> 아버지의 최종학력에 따른 그릇의 차이 검증

종속변인	구분	<i>N</i>	<i>M</i>	<i>SD</i>	<i>F</i>	<i>p</i>
그릇	① 중졸 이하	7	3.191	.448	.955	.432
	② 고졸	206	3.165	.518		
	③ 전문대졸	51	3.212	.501		
	④ 대졸	222	3.238	.494		
	⑤ 대학원 이상	39	3.099	.481		
	전체	525	3.196	.503		

라. 어머니의 최종학력에 따른 그릇의 차이 검증

어머니의 최종학력에 따른 그릇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F 검증을 실시한 결과, 다음의 <표 III-16>와 같다.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어머니의 최종학력에 따른 그릇에는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표 III-16> 어머니의 최종학력에 따른 그릇의 차이 검증

종속변인	구분	N	M	SD	F	p
그릇	① 중졸 이하	7	3.048	.422	1.303	.261
	② 고졸	223	3.169	.507		
	③ 전문대졸	50	3.106	.504		
	④ 대졸	209	3.233	.501		
	⑤ 대학원 이상	35	3.283	.551		
	전체	524	3.194	.508		

마. 학교성적에 따른 그릇의 차이 검증

학교성적에 따른 그릇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F검증을 실시한 결과, 다음의 <표 III-17> 와 같다.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학교성적에 따른 그릇은 상위 20%에 해당하는 집단의 평균이 3.430으로 가장 높았고, 중상위 집단(M=3.255), 중위 집단(M=3.160), 중하위 집단(M=3.010), 하위 집단(M=2.999) 순으로 나타났다.

F검증 결과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p < .001$), 보다 구체적인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유의수준 .05에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학교성적 상위 20% 미만에 해당하는 상위 집단은 20% 이상 40% 미만에 해당하는 중상위 집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p > .05$), 40% 이상 60% 미만에 해당하는 중위 집단($p < .001$)과 60% 이상 80% 미만에 해당하는 중하위 집단($p < .001$), 80% 이상에 해당하는 하위 집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 < .01$). 즉 학교성적 상위 20% 미만에 해당하는 상위 집단의 그릇은 상위 20% 이상-40% 미만에 해당하는 중상위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3집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III-17> 학교성적에 따른 그릇의 차이 검증

종속변인	구분	N	M	SD	F	p	Post-hoc
그릇	①상위(상위 20%미만)	88	3.430	.532	10.607	.000	①>③***
	②중상위(20-40%)	121	3.255	.458			①>④***
	③중위(40-60%)	237	3.160	.516			①>⑤**
	④중하위(60-80%)	108	3.010	.388			②>④**
	⑤하위(80%이상)	16	2.999	.414			
	전체	570	3.189	.498			

6. 유기체, 가정, 학습환경 변인이 그릇에 미치는 영향

앞에서 살펴본 각 독립변인과 그릇의 관계를 보다 분명히 밝히기 위해 그릇을 종속변인으로, 나머지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성격5요인을 유기체환경 변인으로 설정하였으며 부모-자녀 관계 및 가족문화, 부모의 자율적, 성취지향적, 긍정적, 합리적 양육태도를 가정환경 변인으로, 자율, 통제, 교육의 학교풍토 3항목과 자발성, 추종성, 친밀성, 임의성의 학급풍토 4항목 및 또래관계의 질을 학습환경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가. 유기체환경 변인이 그릇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 유기체환경으로 설정한 성격의 하위 5요인을 각각 독립변인으로 투입한 결과 다음의 <표 III-18> 와 같다. 성격5요인에 의해 그릇이 설명되는 정도는 35.5%로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신경증과 성실성($p < .001$), 개방성($p < .01$), 외향성($p < .05$)으로

나타났다. 표준화계수(β)를 살펴보면 성실성($\beta=.428$), 신경증($\beta=-.145$), 개방성($\beta=.129$), 외향성($\beta=.087$) 순으로 상대적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격5요인 중 성실성이 그것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며 신경증은 부적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신경증 성향이 높을수록 그것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III-18> 유기체환경 변인 중 성격5요인이 그것에 미치는 영향

변인	<i>B</i>	<i>SE</i>	β	<i>t</i>	<i>F</i>	<i>R</i> ²
신경증	-.103	.025	-.145	-4.175***	66.493***	.355
외향성	.062	.031	.087	2.003*		
개방성	.137	.043	.129	3.191**		
친화성	-.018	.042	-.020	-.426		
성실성	.377	.040	.428	9.453***		

* $p < .05$ ** $p < .01$ *** $p < .001$

나. 가정환경 변인이 그것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 가정환경으로 설정한 부모-자녀관계와 가족문화 전체 및 부모의 양육태도 하위유형 4항목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한 결과, 다음의 <표 III-19> 와 같다. 가정환경들에 의해 그것이 설명되는 정도는 8.0%로서, 부모-자녀관계만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p < .05$)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족문화 전체와 부모의 양육태도 하위요인인 자율적, 성취지향적, 긍정적, 합리적 양육태도는 그것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즉 가정환경 중 부모-자녀관계만이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데, 정적인 영향력이 있으므로 부모-자녀관계가 좋을수록 그것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III-19> 가정환경 변인이 그것에 미치는 영향

변인	<i>B</i>	<i>SE</i>	β	<i>t</i>	<i>F</i>	<i>R</i> ²
부모-자녀관계	.104	.048	.119	2.184*	9.586***	.080
가족문화	.063	.036	.076	1.756		
자율적	.028	.046	.030	.612		
성취지향적	.096	.049	.104	1.964		
긍정적	.036	.049	.049	.730		
합리적	.011	.051	.014	.215		

* $p < .05$ ** $p < .01$ *** $p < .001$

다. 학습환경 변인이 그것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 학습환경 변인으로 설정한 학교풍토 3항목의 하위유형과 학급풍토의 4항목 하위유형 그리고 또래관계를 독립변인으로 투입한 결과, 다음의 <표 III-20> 와 같다. 학습환경 변인으로 설정한 각 요인들에 의해 그것이 설명되는 정도는 10.1%로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율 학교풍토($p < .01$), 추종성 학급풍토와 또래관계($p < .05$)로 나타났다. 표준화계수(β)를 살펴보면 자율 학교풍토($\beta=.155$), 추종성 학급풍토($\beta=-.115$), 또래관계 ($\beta=.110$) 순으로 상대적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환경 중 자율적인 학교풍토가 그것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며 추종성 학급풍토는 부적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추종성이 높을수록 그것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III-20> 학습환경 변인이 그릿에 미치는 영향

변인	B	SE	β	t	F	R ²
자율 학교풍토	.099	.029	.155	3.390**	9.347***	.101
통제 학교풍토	.007	.028	.011	.264		
교육 학교풍토	.017	.039	.021	.450		
자발성 학습풍토	.049	.043	.071	1.145		
추종성 학습풍토	-.065	.029	-.115	-2.228*		
친밀성 학습풍토	.068	.047	.097	1.447		
입의성 학습풍토	.019	.027	.039	.686		
또래관계	.102	.051	.110	1.986*		

* $p < .05$ ** $p < .01$ *** $p < .001$

V. 논의

겉으로 드러난 신체적 조건이나 주변 환경 등은 어느 또래들과 비교해도 특별한 결함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미리 정한 목표들을 쉽게 포기하고 마는 학생이 있는 반면, 어떤 학생들은 불가능할 것 같은 목표를 기어이 이루고 마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된다(정헬렌, 2011). 따라서 본 연구는 여기에 착안하여 고난(hardship)한 목표를 끝까지 수행하는 학생과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을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체계이론(Ecological System Theory)에 의한 유기체환경 변인 중 성격 5요인의 신경증, 성실성, 개방성, 친화성, 외향성 등과 가정환경 변인 중 하위요인의 부모-자녀관계요인, 경제적요인, 문화적요인, 부모의 양육태도요인, 학습환경 변인의 하위요인 중 학교풍토요인, 학습풍토요인, 또래관계요인 및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등을 독립 변인으로 설정하고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관심과 열정, 급할 줄 모르는 투지와 인내, 즉 그릿을 종속 변인으로 하여 그 상관관계를 연구 탐색하는 것은 물론 선행연구 등과는 어떤 특이점이 도출되었는지 본 논의를 통하여 확인하려고 한다.

연구방법은 울산지역내 남, 여 고등학교 1학년 학생 600명을 표본으로 하여 개인, 즉 유기체 환경 변인과 가정의 환경적 변인, 학습환경 변인 등의 하위요인을 독립 변인으로 설정하고 그릿을 종속 변인으로 하여 자기보고형 설문을 직접 실시하였으며 그 상관관계를 Pearson의 상관분석에 의한 분석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유의미한 통계적 수준을 추론할 수가 있었다.

1. 유기체 환경 변인 중 성격5요인과 그릿

성격5요인과 그릿관계, 즉 신경증(Neuroticism), 성실성(Conscientiousness), 개방성(Openness), 친화성(Agreeableness), 외향성(Extroversion) 등과 그릿의 상관관계는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실성을 비롯한 개방성, 친화성, 외향성 등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신경증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성격의 하위5요인 간의 조사된 관계를 보면, 외향성과 친화성, 개방성과 성실성, 친화성과 성실성이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5요인과 그릿과의 상관관계를 선행연구들의 사례들과 비교해보면 한양숙(2014)은 ‘영재학생들의 그릿의 개별요인과 성격5요인의 상관관계’의 연구에서 그릿은 성실성,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의 순으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신경증은 그릿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또한 성실성이 높은 사람들은 목표 지향적이며 근면하고 의지가 강하다고 평가된다(정영숙 외, 2014; McCrae & Costa, 1987)라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연구들이 본 연구의 유기체환경 변인의 성격5요인과 그릿의 관계에 대한 결과를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권은진, 2017; 김수정, 2010; 김하

경,2016; 김화숙,2018; 이수란,2014; 하혜숙, 임효진, 황매향,2017, 2015).

2. 가정환경 변인 중 부모-자녀관계 및 가족문화, 부모의 양육태도와 그릇

가정환경 변인의 부모-자녀관계와 그릇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릇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가정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성장하고 개인이 삶을 영위해 나아가는데 필수적 기능을 함과 동시에 사회관계형성의 가장 기초적 단위이다(김지혜, 2017).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은 심리적 발달과 사회적응에 1차적 영향을 받으며(김경은, 2017) 부모-자녀의 긍정적 관계는 청소년의 그릇의 성장에도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성립됨을 본 연구를 통하여 알 수 있었다. 다만 가족문화, 즉 ‘우리 가족은 서점이나 도서관에 자주 간다.’ 등과 그릇과의 관계는 그 관련성이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 또한 부모-자녀의 긍정적 관계는 그릇 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지하고 있다(김원정, 2004; 김지영, 2008; 이혜민, 2016; 조수진, 2016; 한정옥, 2017).

부모의 양육태도 역시 그릇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부모-양육태도의 하위 요인 중 자율적 양육태도, 즉 ‘우리 부모님은 공부하는 시간, 방법 등은 내가 알아서 하도록 맡기신다.’ 등은 그릇과 상관관계가 성립하였으며 성취지향적 양육태도-그릇, 긍정적 양육태도-그릇, 합리적 양육태도-그릇 등도 그릇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 확인되었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그릇에 대해 이루어진 직접적인 선행연구는 찾을 수 없었지만, ‘청소년 개인특성, 부모 자녀관계 및 또래관계가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김원정, 2004)에서는 부모-자녀 관계의 하위요인 중 긍정적 요인인 다정성, 자율성, 허용성, 독립성의 경우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과잉보호의 부정적 부모-자녀 관계 요인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김원정의 부모-자녀 관계의 긍정적 하위요인은 청소년의 심리 사회적 적응에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조사 결과는 본 연구의 부모-자녀관계의 긍정적 요인은 그릇과 관계가 있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한정옥(2017)의 ‘중학생이 인지한 부모의 지지와 학업성취압력이 그릇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에서 부모의 정서적 지지는 그릇 수준의 하위요인 중 노력의 지속성 및 그릇 수준 전체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으로써 본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손영미, 2017; 이현미, 2016; 임종필, 2016; 정숙희, 2016. 등의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연구 등에서도 긍정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어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3. 학습환경 변인의 학교풍토와 그릇

학교풍토의 세 가지 하위유형과 그릇은 각 유형별로 상관관계의 통계적 유의성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학교는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한다’는 등의 자율적 학교풍토와 ‘우리학교는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은 편이다.’ 등의 교육적 학교풍토와 그릇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반면에 ‘우리학교는 교칙이나 규율이 엄격하다.’는 등의 통제적 학교풍토와 그릇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학교의 자율적 교육적 학교풍토는 그릇 척도와는 어느정도 상관관계가 성립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통제적 학교풍토가 그릇과 상관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점은 의외로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학교풍토와 그릇의 상관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혜민(2016)의 ‘청소년의 핵심역량 형성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학교환경-핵심역량의 상관관계는 학교환경에 비해 오히려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와 교사의 지도방법과 핵심역량간이 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학교환경 중 자율적 학교풍토-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자율적 학교풍토-문제해결능력에서 유의미한 결과만 있었을 뿐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4. 학습환경 변인의 학급풍토와 그릿

자발성, 추종성, 친밀성, 임의성 등의 학급풍토와 그릿의 상관관계에서는 '우리 반 학생들은 너무 많은 숙제와 학급의 일에 시달린다.' 등의 추종성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자발성, 친밀성, 임의성 등과는 무관한 것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학급풍토와 그릿의 상관관계를 탐구한 국내의 선행연구를 찾아 직접적으로 비교해 볼 수는 없었다. 다만 심연흠(2011)의 '학급풍토와 학생의 자기효능감이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에서 학습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조절효능감, 교사지지, 자신감의 순으로 학급풍토와 하위요인들이 학생의 학습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밖에도 최현주, 정윤미, 김지원, 이상민(2015)의 '초등학생의 학생-교사 애착, 학급풍토, 학교행복감의 관계'에서 1수준인 학생수준의 학생-교사 애착과 학교행복감의 관계는 2수준의 학급수준인 학급풍토에 따라 달라졌다. 학급구성원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학급풍토는 학생-교사관계에서 적응적이지 못한 아동 개인에게도 적응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학생 개인수준에서 인식되는 학급풍토와 학교행복감 간의 관계에 끼치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학급내의 조직풍토가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환경적 요인으로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뿐, 개인적 요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는 그 조절효과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강유선(2016)의 연구에서도 1수준, 즉 학생수준의 학급풍토와 하위변인들 간 상관 연구는 자기개방, 과업중심 그리고 자기개방과 과업중심의 관계를 제외한 학급풍토의 모든 하위 변인간의 상관관계가 정적관계로 나타났다. 또한 2수준인 학급수준의 학급풍토와 하위변인 상관관계에서는 자기개방, 만족감, 결속력, 갈등, 교실활동참여도, 조화순(harmony order)이었다. 이와 같이 학급풍토와 하위변인들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의 연구결과는 본 연구의 학급풍토와 그릿(Grit)과의 관계에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임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다.

5. 학습환경 변인의 또래관계와 그릿

또래관계의 질 척도 중 '나는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등의 또래관계의 질과 그릿, 학급풍토와 또래관계는 통계적으로 비교적 그릿과 높은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관계와 그릿에 대한 선행연구사례 중 황서윤(2017)의 또래애착과 그릿과의 상관 연구에서는 '또래관계가 좋으면 그릿도 성장한다.'는 등과 정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어 본 연구를 지지하였으며 정숙희(2016)의 '또래애착 및 탄력성과 삶의 의미 간의 구조적 관계'에서 수용적 또래애착 관계는 자아정체감 및 자아탄력성을 형성하여 개인의 심리적 사회적 적응을 돕고 좌절을 극복하게 해주며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증진하여 질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해주는 방패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또래관계와 탄력성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성립하였음을 밝힘으로써 본 연구자의 '또래관계의 질은 그릿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이보미(2010)의 '청소년의 또래관계의 질 및 자아탄력성과 정서지능'의 연구에서도 또래관계 질의 긍정적 요인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어 본 연구자의 또래관계-그릿의 상관관계 연구에 대한

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6.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그릇의 관계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그릇의 상관관계 확인을 위해 SPSS WIN 21.0을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빈도, 백분율을 활용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가. 성별에 따른 그릇의 차이 검증

성별에 따른 그릇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확인을 위한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III-13>에서와 같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준의 그릇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남녀 성차(gender difference)로 인한 그릇 척도 상의 차이에 대한 점은 남녀 성차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견해와 선행연구(Marianne Miserandino, 정영숙 외, 2013) 등이 존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추후 남녀 성차로 인한 그릇 성장의 차이에 대해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나. 가정의 월소득에 따른 그릇의 차이 검증

가정의 월소득에 따른 그릇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F 검증을 실시한 결과<표 III-14>에서와 같이 가정의 월소득에 따른 그릇-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정의 월소득은 가정의 경제적 요인에 포함되어 그릇의 성장과도 직접적 상관관계가 존재할 것으로 가정이 되지만 연구대상자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부모의 월소득을 포함시킴으로써 가정의 경제적 요인에 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은 본 연구에 있어 미진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다. 부모의 최종학력에 따른 그릇의 차이 검증

아버지의 최종학력에 따른 그릇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F 검증을 실시하였으나<표 III-15>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아버지의 최종학력에 따른 집단간 그릇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머니 역시 최종학력에 따른 그릇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F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표 III-16>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최종학력이 그릇의 성장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것은 부모-자녀관계와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자녀의 그릇 성장에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지 부모의 최종학력과 그릇의 성장과는 무관하다는 점은 예견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라. 학교성적에 따른 그릇의 차이 검증

학교성적에 따른 그릇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F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II-17>와 같다. 학교성적에 따른 그릇과의 관계는 전교 석차 상위 20%에 해당되는 상위 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중 상위 집단, 중위 집단, 중 하위 집단, 하위 집단순으로 나타났다. 본 검증 결과에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인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유의수준에서 사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전교 석차 상위 20% 미만에 해당하는 상위 집단은 전교 석차 20%이상 40%미만에 해당하는 중 상위 집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전교 석차 40%이상 60%미만에 해당하는 중위 집단과 전교 석차 60%이상 80% 미만에 해당하는 중 하위 집단, 전교 석차 80%이상에 해당하는 하위 집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전교 석차 상위 20% 미만에 해당하는 상위 집단의 그릇은 전교 석차 상위 20%이상 40% 미만에 해당하는 중 상위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세 집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학교성적과 그것에 대한 선행연구는 국내의 경우 현 시점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다. 다만 이수연(2007)의 ‘성적과 행동유형에 따른 여고생의 체육수업회피’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체육평균성적이 우수한 학생일수록 다른 학생들에 비해 체육활동 회피요인이 적으며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고 열정적인 성향인 경우가 많았 다라고 하였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결과적으로 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그것 또한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겠다.

7. 유기체, 가정, 학습환경 변인의 개별요인이 그것에 미치는 영향

앞 부분에서 연구된 각 독립변인과 그것의 관계를 보다 분명히 밝히기 위해 그것을 종속변인으로, 나머지 3변인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성격의 각 하위5요인, 즉 신경증, 성실성, 개방성, 외향성, 친화성 등을 유기체환경 변인으로 설정하였으며 부모-자녀 관계 및 가족문화 그리고 부모양육태도의 4가지 하위요인(자율적, 성취지향적, 긍정적, 합리적)을 가정환경 변인으로, 학교풍토의 3가지 하위요인(자율, 통제, 교육)과 학급풍토의 4가지 하위요인(자발성, 추종성, 친밀성, 임의성) 및 또래관계를 학습환경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가. 유기체환경 변인이 그것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 유기체환경으로 설정한 성격의 하위5요인을 각각 독립변인으로 투입한 결과, 다음의 <표 III-18>와 같다. 성격의 하위 5요인들에 의해 그것이 설명되는 정도는 35.5%로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신경증과 성실성, 개방성, 외향성 순으로 나타났다. 표준화계수를 확인해 보면 성실성, 신경증, 개방성, 외향성 순으로 상대적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성격5요인 중 성실성이 그것에 가장 큰 정적 영향력을 미쳤으며 신경증과 그것은 부적 영향력으로 신경증 성향이 높을수록 그것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선행연구(권석만, 2015; 김주환, 2013; 한양숙, 2015)에서도 지지되고 있음을 이미 밝힌 바 있다.

나. 가정환경 변인이 그것에 미치는 영향

가정환경 변인으로 설정한 부모-자녀관계와 가족문화 전체 및 부모의 양육태도 중 4가지의 하위요인(자율적, 성취지향적, 긍정적, 합리적)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한 결과가 다음의 <표 III-19> 와 같다. 가정환경 변인들에 의해 그것이 설명되는 정도는 8.0%로서, 부모-자녀관계만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족문화 및 부모의 양육태도 중 자율적, 성취지향적, 긍정적, 합리적 등의 하위요인은 그것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환경 변인 중 부모-자녀관계만이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데, 정적인 영향력이 있으므로 부모-자녀관계가 좋을수록 그것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 또한 부모-자녀의 친밀한 관계는 자녀의 의사소통 기술을 발전시키며 자녀의 심리발달과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학교적응에도 중요한 변인으로 보았다(김숙향, 2017; 이현미, 2016). 물론 그것과 상관관계에 대한 직접적 연구는 아니지만 본 연구의 가정환경 변인의 부모 자녀관계는 그것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성립된다는 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다. 학습환경 변인이 그것에 미치는 영향

학습환경 변인으로 설정한 학교풍토의 자율, 통제, 교육의 3항목 하위요인과 학급풍토의 자발성, 추종성, 친밀성, 임의성의 4항목 하위요인 및 또래관계의 질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한 결과는 다음의 <표 III-20>와 같다. 학교요인으로 설정한 각 요인들에 의해 그릿이 설명되는 정도는 10.1%로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율적 학교풍토와 추종성 학급풍토로 나타났으나 학급풍토 중 추종성은 높을수록 그릿이 낮아진다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또래관계는 비교적 높은 영향을 학급풍토에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준화 계수에서는 자율 학교풍토, 추종성 학급풍토, 또래관계 순으로 상대적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요인 중 자율적인 학교풍토가 그릿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며 추종성 학급풍토는 부적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추종성이 높을수록 그릿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VI. 연구의 제한 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1. 연구의 제한 점

장기간 연구에 몰두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였지만 연구에 있어 미진한 부분과 제한될 수밖에 없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가. 울산광역시 교육청 관내 일반계 남, 여 고등학교 1학년 600여명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는 일반화된 청소년을 대표한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청소년기본법(9세 이상 24세이하)을 감안한다면 대상학생의 범위를 일반계고등학교 1학년뿐만 아니라 더 넓은 범위, 즉 전 계열의 고등학생 및 중학교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표본 추출하여 연구에 포함시켜야 했으나 그러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라 하겠다.

나. 가정의 경제적 요인에 대한 그릿과의 상관관계 연구를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고 가족의 일반적 사항의 질문에 경제적 문항을 단순 포함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가정의 경제적 요인과 그릿과의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못한 점은 본 연구에서 미진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다. 학급풍토와 그릿의 상관관계 연구에 있어 학급내에서 발생하는 교사-제자, 급우-급우간의 관계, 특히 교사-제자의 관계는 학습환경 변인 중 그릿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음은 선행연구 등에서도 확인된 바 있지만 본 연구자는 교사-제자의 관계가 그릿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제외하였다. 그것은 교사-제자-그릿의 상관관계는 단일 주제로 정하여 연구를 진행함이 필요하겠기에 본 연구에서 제외를 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학급풍토-그릿의 상관 연구에서 교사-제자의 관계를 제외했다는 점은 본 연구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라. 양적 연구를 실행함에 있어 대부분 리커트(Likert)척도에 의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다수를 상대로 하는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는 대부분 대상 집단들이 시간의 한계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설문문에 답변함으로써 문항을 이해하는 부분이나 점수를 마킹(Marking)할 때 신뢰(Cronbach's α)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나타날 수 있다.

마. 그릿의 성장배경으로 Bronfenbrenner(1979)가 제시한 생태학적 체계이론의 체계환경 중 미시체계를 중심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생태학적 체계환경의 범위가 광범위한 면과 한계를 설정하는데 있어 모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2.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가. 생태학적 체계이론에 근거한 그릇에 대한 후속연구에 있어서 대상범위를 일반고등학교 1학년 학생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전체학생 및 중학교 전 학생을 포함하여 Duckworth가 주장하는 타고난 재능이나 지능의 매개변인인 그릇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생태학적 체계환경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나. 본 연구에서 미진하였던 가정의 경제적 요인에 따른 그릇의 상관관계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빈곤에 대한 태도가 청소년의 진로신념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에서 빈곤집단의 청소년들이 비빈곤 집단의 청소년보다 진로신념 점수에서 낮은 점수로 기록되어 더 관습적이고 의존적이며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승영, 2012). 이 같은 선행연구 결과를 유추하면 가정의 경제적 요인은 그릇과의 상관관계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다.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체계 이론 중 미시체계 환경에 속한 학습환경 변인의 학급풍토, 즉 교사-제자 관계는 그릇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 연구에서 제외가 되었다. 따라서 학급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제자의 그릇에 대한 영향요인 확인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라. 양적연구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을 보면 연구조사방법이 리커트(Likert)척도에 의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인 것을 알 수 있다. 리커트척도에 의한 조사방법은 표준화되어 있고 신뢰도도 담보(collateral)가 되어있지만 단순 용이하다는 차원에서 쉽게 접근한다면 신뢰도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최근 교육현장 및 연구 발표회 등에서 리커트(Likert)척도에 의한 조사 빈도가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교육현장의 실상(fact)은 연구대상자들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추후 양적 연구에 있어 1:1 면접에 의한 직접 조사 또는 별도의 표본을 선정하여 심층면적 조사를 병행한다면 한층 신뢰도 높은 연구조사의 결과를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 장기적인 목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 어려운 난관에도 굴하지 않는 끈기, 투지, 인내등으로 대변되는 그릇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주로 그릇을 매개변인 또는 독립변인으로서 그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 있어서는 그릇을 매개변인, 독립변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심층 연구한다면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참고 문헌

- 권석만(2017), 현대 성격심리학. 서울: 학지사
- 고성환, 이상진(2010), 글쓰기.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구평희(2003), META 구평희 교육학. 서울: 도서출판 신수서원
- 김신일(1985), 교육사회학(제3판). 서울: 교육과학사
- 김영인, 김민(2008), 청소년지도방법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김영인, 노경주(2009), 청소년학습이론 및 지도.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김주환(2013), GRIT: 잠재력을 실력으로, 실력을 성적으로, 결과로 증명하는 공부법.
파주: ㈜쌤앤파커스
- 김창걸(1994), 교육행정학 신문. 서울: 형성출판사
- 김희수(2005), 인지행동 치료를 위한 진로상담의 효과 연구. 파주: ㈜ 한국학술정보
- 박용현(1975), 학교사회. 서울: 배영사
- 오옥환(2003), 교육사회학의 이해와 탐구. 파주: 교육과학사
- 이성진, 임진영, 여태철, 김동일, 신중호, 김동민, 김민성, 이윤주 공저(2013), 교육심리학서설
파주: 교육과학사
- 이종승(2009), 교육, 심리, 사회 연구방법론. 파주: 교육과학사
- 이홍우 저, 박종덕 편(2015), 인지학습의 이론. 파주: 교육과학사
- 이현실, 양지안(2017), 논문통계분석 내비게이션. 서울: 한나래사
- 정옥분(2004), 전생애발달이론. 서울: 학지사
- 추병완(2017), 회복탄력성 학교, 가정 군대에서의 실천전략. 서울: ㈜도서출판하우
- 한국청소년개발원 편(2005), 청소년문화론. 파주: 과학사
- 한국청소년개발원(2004), 청소년심리학. 파주: 교육과학사
- 헬렌 S. 정(2011), 인라이어. 서울: ㈜랜덤하우스
- 황영조(1992), 나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울: 도서출판 일빛
- 로스 D. 파크 외 역, 이민희, 정태연 옮김(2004), 발달심리학의 거장 등의 핵심이론 연구.
서울: ㈜ 학지사
- 로이 F. 바우마이스터, 존 티어니, 이덕임 옮김(2012), 의지력의 재발견. 서울: 에코리브르
- 바버라 에런라이크, 전미영 옮김(2009), 긍정의 배신. 부키

- 베이직 콘텐츠 하우스 기획 개발(2017),
8년간 백악관 스피치라이터가 뽑은 오바마 대통령 최고의 연설. 파주: 삼지사
- 에이미 추아, 제드 러벤펠드, 이영아 옮김(2014), 성공의 세 가지 유전자 트리플 패키지.
서울: (주) 미래엔 와이즈베리.
- 존 스토리, 유영민 옮김(2011), 대중문화란 무엇인가. 파주: 태학사
- Bronfenbrenner, U. 이영 옮김(1992), 인간발달생태학. 서울: 교육과학사
- Christopher Peterson & Martin E. P. Seligman, 문용린, 김인자, 원현주, 백수현, 안선영 옮김(2009),
긍정심리학에서 본 성격 강점과 덕목의 분류. 서울: 한국심리상담연구소
- David G. Myers, 민윤기, 전우영, 권선중 옮김(2011), 마이어스의 심리학 탐구 제 8판.
서울: 시그마프레스
- Duckworth, A. L. (2006). *Intelligence is not enough: Non-IQ predictors of achievement.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 Duckworth, A. L., Peterson, C., Matthews, M. D., & Kelly, D. R. (2007).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6), 1087-1101.
- Duckworth, A. L. (2016). *Grit: The power of passion and perseverance*. Scribner.
- Duckworth, 김미정 옮김(2017), GRIT. 서울: (주)비즈니스북스
- Hawley, A. H. 홍동식, 강대기, 민경희 옮김(1995), 인간생태학-지역공동체 이론. 서울: 일지사
- Marianne Miserandino, 정영숙, 조옥귀, 조현주, 장문선 옮김(2013),
최신연구에 기초한 성격심리학. 서울: (주)시그마프레스
- 松亭 金赫濟 校閱(2005), 原本修旨 孟子集註(上, 下). 서울: 명문당
- 松亭 金赫濟 校閱(2002), 原本 小學集註(上, 下). 서울: 명문당
- 강다현(2018),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대와 방임이 신체화 증상이 미치는 영향: 자아 존중감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강애원(2017), 『살림의 거미줄』에 나타난 월버의 생애주기: 에릭슨의 심리발달 8단계의 관점에서. 대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강유선(2016), 학급풍토와 도움추구태도와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의 유용성 기대와 사회적 낙인의 매개효과: 학생수준 비교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강지은(2018),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자아탄력성, 자기 효능감과 학습된 무기력의 관계.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곽화진(2016), 학급풍토가 학업동기 및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 학생수준과 학급수준 비교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권경희(2017), 감정노동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권은진(2017), 성격5요인의 구조모형 검증 및 성별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권지은(2010), 아동기 가족의 가족여가 활동 실태와 가족여가 만족도 및 장애들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기광도, 이연길(2002), 부모의 양육방식이 자녀비행에 미치는 효과분석. 교정연구, 16, 7-27.
- 김경은(2017), 청소년의 부모자녀 관계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원불교대학원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기명(2010), 학문적 재능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구조분석을 통한 Gagne의 DMGT모형 검증.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기호(2017),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의 사용의도 및 사용행위에 관한 연구: 성격5요인 이론(FFM)과 통합기술수용이론(UTAUT)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득준(2014), 초등학생의 학습효과 관련 변인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무현(2006), 유가의 교학사상에 관한 연구: 효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미숙 외(2017), 초중고 학생의 그릿에 미치는 환경요인 및 성별, 학년별 특성. 한국교육개발원 학술 논문
- 김민정(2018), 유교 가족관의 시(時), 공간적 역동성.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보민(2013), 유아의 유아교육기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유기체 변인과 미시체계 변인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상미(2008), 수학 재능아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수정(2010), 청소년 성격특성이 리더십 생활기술에 미치는 영향: 성격5요인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수정(2016), 아들러(Adler)의 열등감과 청소년의 자기격려와 상관관계연구. 호남신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숙향(2017), 청소년의 개인요인, 부모요인, 친구요인 및 지역사회 요인이 학교적응 발달 궤적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승민(2017), 긍정심리자본이 학습전이 특성과 학습전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부산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승재(2014), 스포츠 스폰서십을 활용한 마케팅에 관한 연구: 박태환 선수 사례를 중심으로. 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영란(2016), 성격장애의 차원적 개념화: 성격조직, 정상 성격특질 및 병리적 성격특질의 역할.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영란(2015), 장애유아의 어머니가 인식한 자녀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생태학적 변인의 관계연구: 유기체, 미시체계 및 중간체계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용국(2010),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의사소통 및 자녀의 주관적 행복에 관한 연구. 삼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원정(2004), 청소년 개인특성, 부모-자녀관계 및 또래 관계가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유미(2007), 5요인 성격모형을 이용한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특성 비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윤경(2017), 사회정서 학습(SEL)을 적용한 학교인성교육 정책방향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은미(2012),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따른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의 구조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은혜(2008), 청소년의 심리적 성장환경과 성격의 5요인 특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지영(2008), 남, 여 청소년의 가족 및 또래요인과 자아존중감.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지혜(2017),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 및 학교생활 적응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진경(2002), 시설거주여부,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초기 청소년의 의사소통 기술과 또래관계의 질.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진숙(1992), 교육과정에 있어서의 '잠재적 기능'과 '의도치 않은 결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진아(2014), 『제인 에이』의 아이덴티티 발달연구: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을 바탕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창걸(1984), 교장의 지도성 행위상황 및 조직효과성 간의 관계연구.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연구발표회 논문집, 1984, 1-23.
- 김창걸(1995), 교사의 지도성과 학급경영풍토와 교육의 생산성과의 상호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경영학회 제5회 학술연구발표회 학술논문, 1981.

- 김창민(2013), 학교 학습환경 평가목록표 개발: 고등학교 학습환경 평가모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하경(2016), 대학생의 성격5요인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화숙(2018), 그릿(Grit), 성격5요인, 몰입 및 성취동기의 관계. 대구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혜은(2018), 가족건강성과 자아정체감이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예원예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희명(2015), 한국판 투지(Grit) 척도의 타당화 연구. 경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희선(2013), 아동의 성별에 따른 형제자매 관계와 친구관계 및 성격특성의 관계.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희선(2014), 생태학적 관점에서 학교폭력 유발요인이 학교폭력에 끼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남궁명희(2010), '관계적 자율성'의 관점에서 본 노부모 돌봄의 실천과 협상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노영석(2016), 일반계 고등학생의 그릿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노영운(2004), 아동이 지각한 심리적 가정환경과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분석. 전주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노지현(2010), 인터넷 게임중독이 청소년의 학교적응 및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노혜진(2013), 5요인 성격 학습전략,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 고등학교 영어교과를 중심으로. 대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도미향, 채경선(2006), 부모자녀관계 코칭 기법 적용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부모교육학회, 6(3-2), 69-89.
- 류수현(2018), 청소년의 부모 애착 및 또래관계와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인터넷 몰입의 조절효과.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모화숙(2018), 지능, 성격, 학습접근책과 학업성취의 구조적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문미영(2017), 중학생의 기질, 지각된 양육태도가 또래 괴롭힘 주변인 행동과의 관계에서 성격강점의 조절 및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문수경(2004), 청소년의 부모-자녀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부모 자녀를 대상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문예은(2018), 청소년기 인격형성을 위한 음악교육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 J. Piaget의 인지발달이론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문정례(2016),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업적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과 학업적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 서울불교대학원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민병모(2001), 성격5요인 모형에서 개인-조직 일치도와 수행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교원(1997), 초등학교 학급풍토와 아동의 학구적 자아개념, 학습태도와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명숙(1999), 생태체계 이론에 대한 이해와 사회사업에의 적용에 관한연구. 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 연구소, 사회복지리뷰; 4(1), 127~137.
- 박미라(2013), Big5 성격요인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미선(2011), 성격유형에 따른 감성기능, 심리적 웰빙, 직무성과 간의 인과관계 연구: 서울지역 특급호텔 종사원을 대상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선의(2016),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자녀 웰빙과의 구조적 관계: 행복감, 성장 마인드셋, 그릿 및 희망의 영향. 한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수빈(2015), 심리적 애착의 원형으로서 태교.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영도(2017), 특성화 중고등학교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와 교사효능감, 학교풍토 및 학교장의 변혁적 리더십의 인과적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영림, 최혜림(2002),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부모 애착, 부부갈등, 지각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August 2002, Vol. 14(3), 741-755.
- 박용기(2004), 마음의 창 열기 체험 활동을 통한 바른 인성됨이 실천 방안. 대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인운, 김갑수, 김경, 전주성, 고범성(2006), 유비쿼터스 환경을 지향하는 미래교실 구성 방안. 한국교육 학술 정보원
- 박정근(1999),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지도성 유형과 학급풍토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정배(2010), 청소년활동몰입 관련요인에 대한 구조분석.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준수(2017), 귀인피드백이 마인드셋, 그릿, 자기 조절력에 따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혜신(2003), 빈곤가정의 빈곤문화, 빈곤가족의 가족사와 빈곤가족 아동의 생애사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홍원(2016), 일반고 학생의 학업성취와 정의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 일반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반기완(2015), 청소년 활동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에 관한 연구: 일반청소년과 문제청소년의 비교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배승재(2014), 성격특성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배용득(2004), 교장의 수업지도성이 고등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변량 구조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004. Vol. 22, No3, 133-158.
- 빈태선(2014), 초등교사가 지각한 학교풍토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서다숨(2014), 고등학교 미술과 학습환경 개선 방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재 일반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서상진(2014), 학교풍토와 교사의 변인이 교사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서용석(2015), 김연아를 통해 본 스포츠영재의 영재성 발현에 관한 사례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석승혜(2013), 유명한 네트워크(Celebrity Network)가 SNS이용자의 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성금례(2017), 고등학생의 자기결정성과 자아분화가 자기주도적 학습에 미치는 영향. 공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성선재(2008), 전통문화를 활용한 역사교육 활동이 유아의 역사개발과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손영미(2017), 문화적 맥락에 따른 부모자녀 관계와 진로정체감의 관계: 한국적 진로상담의 방향모색.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송우경(2018), 성장마인드셋, 회복탄력성과 일반계 남자고등학생의 학교적응 간의 관계: 그것의 매개 효과.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송윤이(2015), 도시부동산 공간이 영유아의 사회관계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지자체 인식에 대한 교사, 학부모의 평정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송지현(2012), 청소년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지역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양육태도를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송현저(2006), 문화자본과 쓰기수행의 관계 및 성차.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신각균(2013), 공자사상을 통한 인성교육 지도방안. 군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미숙(2010), 부모의 양육태도가 의사소통 및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명용(2018), 뇌교육 기반 인성프로그램이 그릿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국제 뇌 교육 종합대학원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심상숙(2016), 유학의 인성교육사상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심연흠(2011), 중 고등학교의 학급풍토와 학생의 자기효능감이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
관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안이정(2018), 위기청소년의 미술치료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차 의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양 리(2015), 개인성격 Big 5가 조직 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직무만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양 척(2016), 한국 고등학생의 가치성향과 5요인 성격특성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예수백(2017), 맹자의 성선설과 정치이론. 울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연보라, 장희원, 김경근(2013),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학업지원, 양육방식, 사교육 참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교육과학연구, 19(3), 99-122.
- 오은주(2012), 대학 진로교과목 수강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변화유형: 성격과
성차효과에 대한 성장혼합모형 적용.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오준영(2017), 한국 선비정신이 조직문화와 기업이미지를 매개로 창업기업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가현(2017), 학교유형이 학생의 시민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자사고, 외고와
일반고, 자공고의 차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영주(2018), 그릿(Grit)은 어떻게 발달하고 발휘되는가?: 노력-보상 불균형, 선행과제
도전횟수, 역경과제 재도전율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 원(2017), 다문화가정 자녀의 부모와의 관계만족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다문화 배경에 대한 자긍심의 매개효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병오(2013), 성격 강점 및 덕목에 대한 VIA분류체계의 도덕교육적 의의.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윤태희(2016), 여대생의 성격 5요인과 완벽주의에 따른 군집유형별 성형태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경면((2003), 가정 및 지역사회 환경 맥락을 중심으로 한 자폐성 장애유아의 가족중심 교육활동에 관한 생태학적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기훈(2003), 잠재적 교육과정 측면에서 본 교사로서의 성령에 관한 연구. 충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길례(2016), 한국 고등학생의 영어 학습동기 상실요인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내규(2004), 청소년의 주거환경과 심리적 성숙도와의 관계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도경(2017),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고등학교 선택 및 대학 입시에 미치는 영향: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자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문자(2009), 종가의 형성과 제사: 학봉 김성일 종가를 중심으로. 성균관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보미(2010), 청소년의 또래관계 질 및 자아탄력성과 정서지능.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수경(2016), 성인 초기의 성장 마인드셋, 고정 마인드셋과 그것의 관계: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수란(2014), 투지와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 자존감의 수반성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수연(2007), 성적과 행동유형에 따른 여고생의 체육수업회피.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영(2012), 빈곤에 대한 태도가 청소년의 진로신념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란(2006), 상담자의 소진(burnout)과 5요인 성격 특성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영옥(2010), 발달단계 측면에서 본 일상적 스트레스가 아동·청소년이 지각한 환경과 심리적 문제에 미치는 변인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윤순(2017), 교사지지와 가정의 심리적 환경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자기조절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정석(1992), 조선 유학에 관한 교육사상 연구: 정주성리학 도입과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정림(2015), 통제소재, 마인드셋, 그릿(Grit), 학업성취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안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정미(2005), 미시체계적 관점에서 본 청소년기 전환기 문제행동: 가정 및 학교 환경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정훈(2018), 고등학생의 진로신념과 학업중단의도 간의 관계에서 끈기의 매개효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주연(2003), Big-Five인성검사의 지적 개방성 요인과 유동 및 결정 지능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지현(2017), 가족 건강성과 자아존중감이 청소년 흡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치영(1980), 학교환경의 심리적 변인이 학습성취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태희(2014), 다문화가족 자녀가 지각한 가족건강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사회적 자본을 조절변수로.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현미(2016),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의사소통
유형을 매개 변인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혜민(2016), 청소년의 핵심역량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홍숙(2017) 성격특성(Big 5)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신념의 매개효과 및
셀프리더십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임종필(2016). 부모의 양육태도 및 학교환경이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임지영(2018),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열등감
반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지현(2004), 지각된 자율성 지지정도와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동기 및 학업적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임통일(2013), 진로자기 효능감의 선행요인인 가족지지, 심리적 독립, 진로장벽이 진로준
비행동 및 결정에 미치는 영향(장애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비교).
나라셋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위하이양(2014), 중국 유학생 스포츠 동호인 하위문화의 특성 및 기능.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관방(2014), 부모의 학대가 청소년의 또래 애착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의 매개효과.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은지(2017), Big5 성격요인에 따른 청소년 성격특성의 발달적 변화.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전미라(2017), 사회인지, 진로, 자기관리모형에 따른 부모지지와 대학생의 성격요인 및
진로탐색 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동숙(2018), 청소년의 긍정심리자본, 사회적 지지, 사회적 자본과 학교 부적응.
가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숙희(2016), 부모양육태도, 또래 애착 및 탄력성과 삶의 의미 간의 구조적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신실(2016), 에릭슨의 자아정체성 개념의 재조명.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은주(2017), 청소년 회복탄력성 관련 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초당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잔대(1996), 노력과 능력에 대한 가치인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해철(2016), 학생의 학업성취도 변화에 대한 학교효과 연구: 서울시 일반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조수진(2016), 중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그릿의
조절효과.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주은미(2011),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와 자기효능감 및 낙관성의 관계.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주지선(2017), 청소년의 학교폭력 주변인 행동유형에 대한 생태체계적 요인의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차윤진(2011), 당신의 숨은 재능을 발휘하라(Release Your Brilliance: 번역논문).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차은경(2011), 아들러(Adler)의 개인심리학이론에 기초한 아동의 열등감과 부모양육의
상관성 연구: 상담학적인 관점에서. 한일장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보라(2014), 가정 학교의 심리적 환경, 성격, 학습전략 및 학습몰입 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원정(2017), 청소년기에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가 성인기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진로 성숙도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옥희(2006), 생태학적 변인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학교적응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은정(2014), 아동의 애착안정성 수준별 뇌신경 활성화에 대한 fMRI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현주, 정윤미, 김지원, 이상민(2015), 위계선형모형(HLM)을 적용한 초등학생의 학생-
교사 애착, 학급풍토, 학교행복감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9(3)
- 하경민(2018), 부모와 함께한 문화예술 경험이 유아의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하혜숙, 임효진, 황매향(2015), 끈기와 자기통제 집단수준에 따른 성격요인의 예측력 및 학교부 적응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평생학습사회*, 11(3). 145-166
- 하혜숙, 임효진, 황매향(2017), 학업적응에서 끈기(Grit)와 목표의식, 성실성, 탄력성의 역할. *상담학연구*, 18(1). 371-388.
- 한세리(2017), 가정과 학교의 사회자본이 학업성취 향상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한양숙(2014), 초등 영재학생의 그릿(Grit), 그릿 개별요인, 성격5요인의 관계. 인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정옥(2017), 중학생이 인지한 부모의 지지와 학업성취압력이 그릿(Grit)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황광원(2017), 그릿의 인성교육 적용방안.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황민자(2011), 조손가족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의 구조 분석: 초등학교 4, 5, 6학년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영조(2008), 마라톤의 문화적 인식과 활성화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홍영운(2017), 외국인의 한국생활문화 친숙도와 방문행동의도의 관계: 생활문화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홍정미(2008),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허묘연(1999),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현다경(2017), 청소년의 가정환경, 친구관계, 교육환경 및 지역사회환경이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아인식 및 정서문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Allport, G. W. (1961). *Pattern and growth in Personality*.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ronfenbrenner, U. (1993). *The ecology of cognitive development: Research models and fugitive findings*. In Wozinak, R. H. & Fishes, K. (eds.), *Scientific environments*, Hillsdale, NJ: Erlbaum.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Coleman, J. S. Ernest Q. Campbell, E. Q. McPartland, J. Mood. A. M. Weinfeld, F. D. and York, R. L. (1966).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U. 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Welfare office of education.

- Costa, P. T., & McCrae, R. R. (1992a). *Four ways five factors are basic*.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13, 653-665.
- Costa, P. T., & McCrae, R. R. (1992b). *Revised NEO personality inventory (NEO-PI-R) and NEO five-factor inventory (NEO-FFI) Professional manual*. Florida: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Che-Li Lin, (2016). *Personality and Family Context in Explaining Grit of Taiwanese High School Students*. Chun-Yen Chang
- Digman, J. M. (1990). *Personality structure: emergence of the five-factor model*.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1, 417-440.
- Digman, J. M. (1997). *Higher-order factors of the Big F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6), 1246-1256.
- Duckworth, A., Peterson, C., Matthews, M., & Kelly, D. (2007).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6), 1087-1101.
- Dweck, C.S. (1999). *Self-Theories: Their role in motivation, personality and development*. Philadelphia: Taylor and Francis/Psychology Press.
- Fagot, B. I. (1974). *Sex differences in toddler's behaviour and parental re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4, 554-558
- Fishbein, M., & Ajzen, I.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 Addison-Wesley, 6.
- Geert Jan J. M. Stams, (2009). *The Relations Between Parents' Big Five Personality Factors and Parenting: A Meta-Analytic Review*. Jay Beisky.
- Levy, J. M., & Steele, H. (2011). *Attachment and grit: Exploring possible contributions of attachment styles (from past and present life) to the adult personality construct of grit*. *Journal of Social and Psychological Sciences*, 16 (2), 16.
- McCrae, R. R., & Costa, P. T. Jr. (1983). *Joint factors in self-reports and ratings: Neuroticism, extraversion, and openness to experienc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 245-255.
- McCrae, R. R., & Costa, P. T. Jr. (1991). *Adding liebe und arbeit: The full five-factor model and well-be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7(2), 227-232.
- McCrae, R. R., Yamagata, S., Jang, K. L., Riemann, R., Ando, J., Ono, Y., & Spinath, F. M. (2008). *Substance and artifact in the higher-order factors of the Big F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5, 442-455.
- Murray, H. A. (1938). *Exploration in Personality. A clinical and experimental study of fifty men of college ag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

- Nancy Daling, (1997).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the Parenting Style Inventory II (PSI-II)*,” (unpublished manuscript, 1997), Duckworth. (2017).
- Shechtman, N., DeBarger, A., Dornsife, C., Rosier, S., & Yarnall, L. (2013). *Promoting grit, tenacity, and perseverance: Critical factors for success in the 21st century*.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of Educational Technology.
- Stokas, A. (2015), *A Genealogy of Grit: Education in the New Gilded Age*. *Educ Theory*, 65, 513–528.

부록

제목: 생태학적 접근에 따른 그릿(Grit)의 영향요인 탐색
(—유기체, 가정, 학습환경을 중심으로—)에 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교육학과에서 석사과정을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본 설문지를 통해 청소년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이 그릿(Grit=투지)의 성장에 미치는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연구 분석하고자 합니다. 답변시간은 약15~20분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시된 설문지 문항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뜻 자신과 가깝다고 생각되는 것에 솔직하게만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작성해주신 본 설문지는 익명으로 학술적 연구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1년 기간 정도의 연구가 끝나면 폐기할 것을 약속합니다.

다만 한 문항도 빠짐없이 성의껏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답변해주신 본 설문지는 청소년을 위한 연구 자료로 소중한게 사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3 월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교육학과 조 명 수 드림

1. 다음은 여러분의 그릿(grit)에 대한 척도입니다. 그릿이란? 장기적인 목표에 대한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열정을 말합니다. 여러분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성실하게 √ 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한 가지 목표를 세워놓고 다른 목표를 추구한 적이 종종 있다.	5	4	3	2	1
2	부지런한 것은 나의 장점이다.	5	4	3	2	1
3*	나의 관심사는 해마다 바뀐다.	5	4	3	2	1
4	나는 실패해도 실망하지 않는다. 나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5	4	3	2	1
5*	나는 몇 개월마다 새로운 목표에 호기심과 관심을 갖게 된다.	5	4	3	2	1
6	나는 뭐든 시작한 일은 반드시 끝낸다.	5	4	3	2	1
7*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 와 프로젝트 때문에 기존의 것에 소홀해진 적이 있다.	5	4	3	2	1
8	나는 성실하다.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5	4	3	2	1
9	나는 노력가다.	5	4	3	2	1
10*	나는 어떤 아이디어나 프로젝트에 잠시 사로잡혔다가 얼마 후에 관심을 잃은 적이 있다.	5	4	3	2	1
11	나는 좌절을 딛고 중요한 도전에 성공한 적이 있다.	5	4	3	2	1
12*	나는 몇 개월 이상 걸리는 일에 계속 집중하기 힘들다.	5	4	3	2	1

2. 다음은 성격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잘 읽고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것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거의 언제나 느긋한 편이다.	1	2	3	4	5
2	나는 모임에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인물이다.	1	2	3	4	5
3*	우울함을 거의 느끼지 않는다.	1	2	3	4	5

4	쉽게 불안해진다.	1	2	3	4	5
5	상식이나 어휘를 많이 아는 편이다.	1	2	3	4	5
6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다.	1	2	3	4	5
7	항상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	1	2	3	4	5
8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도 위축되지 않는다.	1	2	3	4	5
9	상상력이 풍부하다.	1	2	3	4	5
10	다른 사람의 기분을 잘 이해하는 편이다.	1	2	3	4	5
11	세밀한 부분에도 주의를 기울인다.	1	2	3	4	5
12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다.	1	2	3	4	5
13	대화를 먼저 시작하는 편이다.	1	2	3	4	5
14	훌륭한 아이디어를 낼 때가 많다.	1	2	3	4	5
15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16	어지러워지면 즉각 청소를 한다.	1	2	3	4	5
17	사고모임에서 여러 사람과 얘기를 나눈다.	1	2	3	4	5
18	이해가 빠른 편이다.	1	2	3	4	5
19	다른 사람을 위해 시간을 잘 낸다.	1	2	3	4	5
20	질서정연한 것을 좋아한다.	1	2	3	4	5
21	마음이 쉽게 심란해진다.	1	2	3	4	5
22	다른 사람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는 것을 꺼려하지 않는다.	1	2	3	4	5
23	어려운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	1	2	3	4	5
24	다른 삶의 감정을 내 것처럼 느낀다.	1	2	3	4	5
25	계획한 것을 그대로 실행한다.	1	2	3	4	5
26*	말을 많이 하지 않는 편이다.	1	2	3	4	5
27	깊은 생각에 잠길 때가 많다.	1	2	3	4	5
28	화를 잘 내는 편이다.	1	2	3	4	5
29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 준다.	1	2	3	4	5
30	일에 대해서는 가혹하리 만큼 열심히 한다.	1	2	3	4	5

31	기분의 변화가 심하다.	1	2	3	4	5
32*	모임에서 나를 잘 드러내지 않는 편이다.	1	2	3	4	5
33	여러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다.	1	2	3	4	5
34*	다른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	1	2	3	4	5
35*	내 물건들을 잘 정돈하지 않는 편이다.	1	2	3	4	5
36*	사람들과 별로 할 얘기가 없다.	1	2	3	4	5
37	감정의 기복이 심한 편이다.	1	2	3	4	5
38	쉽게 짜증이 난다.	1	2	3	4	5
39*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1	2	3	4	5
40*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행동할 때가 있다.	1	2	3	4	5
41	자주 우울해진다.	1	2	3	4	5
42*	일을 엉망으로 만들 때가 많다.	1	2	3	4	5
43*	추상적인 관념에는 별 관심이 없다.	1	2	3	4	5
44*	나에게 주의가 집중되는 것이 싫다.	1	2	3	4	5
45*	물건을 사용한 후에 제자리에 두는 것을 잘 잊는다.	1	2	3	4	5
46*	다른 사람의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다.	1	2	3	4	5
47*	상상력이 풍부하다.	1	2	3	4	5
48*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1	2	3	4	5
49*	모르는 사람들과 있을 때는 과묵 해진다.	1	2	3	4	5
50*	해야 할 일을 태만히 한다.	1	2	3	4	5

3. 다음은 여러분의 부모-자녀관계를 측정하는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여러분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런 편 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가족은 관계가 좋은 편이다.	1	2	3	4
2. 우리 가족은 화목한 편이다.	1	2	3	4

3. 우리 가족은 서로 잘 돕는다.	1	2	3	4
4. 우리 가족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다.	1	2	3	4
5. 우리 가족은 함께 놀러가는 경우가 많다.	1	2	3	4
6. 우리 가족은 주말을 함께 보내는 편이다.	1	2	3	4
7. 나는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다.	1	2	3	4
8. 나는 나의 장래에 대해 부모님과 상의하는 편이다.	1	2	3	4
9. 나는 고민이 있을 때 부모님과 상의하는 편이다.	1	2	3	4
10. 나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편이다.	1	2	3	4
11. 나는 부모님을 존경한다.	1	2	3	4
12. 나는 부모님처럼 살아가고 싶다.	1	2	3	4

4. 다음은 가정의 문화적 분위기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여러분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런 편 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집에는 책이 많다 (만화책이나 잡지, 교과서나 참고서는 포함하지 않음).	1	2	3	4
2. 우리 집에는 음악이나 미술과 관련된 물품이 많다.	1	2	3	4
3. 우리 가족은 클래식 공연이나 연극 및 뮤지컬 관람을 자주한다.	1	2	3	4
4. 우리 가족은 대중음악 공연이나 영화를 보러 자주 간다.	1	2	3	4
5. 우리 가족은 서점이나 도서관에 자주 간다.	1	2	3	4

5. 다음은 여러분 부모님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여러분의 부모님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부모님은 공부하는 시간, 방법 등은 내가 알아서 하도록 맡기신다.	1	2	3	4
2. 우리 부모님은 어떤 일이든 가능하면 내가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	1	2	3	4
3. 우리 부모님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신다.	1	2	3	4
4. 우리 부모님은 내가 하는 일이 서툴더라도 내가 스스로 해보도록 하신다.	1	2	3	4
5. 우리 부모님은 내 방 청소나 정리하는 내가 스스로 하도록 지도하신다.	1	2	3	4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6.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위인들의 훌륭한 업적이나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신다.	1	2	3	4
7. 우리 부모님은 내가 여러 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원하신다.	1	2	3	4
8. 우리 부모님은 나의 성적과 진로에 대해 관심이 많은 편이다.	1	2	3	4
9. 우리 부모님은 내가 어떤 것을 배우려고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 주신다.	1	2	3	4
10. 우리 부모님은 내가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기를 바라신다.	1	2	3	4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1. 우리 부모님은 내가 실수하여 잘못했을 때 괜찮다고 격려해 주신다.	1	2	3	4
12. 우리 부모님은 내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더라도 일단 들어주고 공감해 주신다.	1	2	3	4
13. 우리 부모님은 사소한 일에도 나에게 칭찬을 자주해 주신다.	1	2	3	4
14. 우리 부모님은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다고 믿고 격려해 주신다.	1	2	3	4
15. 우리 부모님은 내가 힘들 때 나에게 용기를 주려 하신다.	1	2	3	4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런 편 이다	매우 그렇다
16. 우리 부모님은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가 설명해 주신다.	1	2	3	4
17. 우리 부모님은 나의 요구를 거절할 때 그것을 왜 들어줄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신다.	1	2	3	4
18. 우리 부모님은 나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합당한 벌을 주시는 편이다.	1	2	3	4
19. 우리 부모님은 부모님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게 하기보다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해 주신다.	1	2	3	4
20. 우리 부모님은 칭찬이나 벌을 주실 때 내가 이해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1	2	3	4

6. 다음은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의 규율 및 풍토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여러분의 학교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런 편 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학교는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한다.	1	2	3	4
2. 우리학교는 복장이나 두발에 있어 학생들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해준다.	1	2	3	4
3. 우리학교는 수업시간을 제외하고 학생들의 개성을 존중해준다.	1	2	3	4
4. 우리학교는 교칙이나 규율이 엄격하다.	1	2	3	4
5. 우리학교는 교칙 적용이 강압적이다.	1	2	3	4
6. 우리학교는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은 편이다.	1	2	3	4
7. 우리학교는 학생들이 협동적으로 활동하는 팀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다.	1	2	3	4
8. 우리학교는 토론식 및 탐구식 수업이 많이 이루어진다.	1	2	3	4

7. 다음은 여러분의 학급에 대한 나의 느낌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번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반 학생들은 즐겁게 자기가 맡은 책임을 다한다.	1	2	3	4	5
2	우리 반 학생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바를 적극 주장한다.	1	2	3	4	5
3	우리 반 학생들은 새로운 의견을 교환하며, 다른 사람의 좋은 의견을 받아들인다.	1	2	3	4	5
4	우리 반 학생들은 자신의 집에 반 친구들을 초대한다.	1	2	3	4	5
5	우리 반 학생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열심히 하자'라는 분위기를 느낀다.	1	2	3	4	5
6	우리 반 학생들은 학급에 일이 생겼을 때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협력하여 처리한다.	1	2	3	4	5
7*	우리 반 학생들은 너무 많은 숙제와 학급의 일에 시달린다.	1	2	3	4	5
8*	우리 반 학생들은 선생님이 새운 규칙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불평을 가진다.	1	2	3	4	5
9*	우리 반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불만이 있지만 하지 못해 일한다.	1	2	3	4	5
10*	우리 반 학생들은 학급회의에서 정해진 발언 이외에는 별로 말이 없다.	1	2	3	4	5
11*	우리 반 학생들은 모든 일을 선생님의 지시가 있어야만 움직인다.	1	2	3	4	5
12*	우리 반 학생들은 서로 협조하기보다는 경쟁적이다.	1	2	3	4	5
13	우리 반 학생들은 준비물을 서로 잘 빌려준다.	1	2	3	4	5
14	우리 반 학생들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반 친구들과 잘 의논한다.	1	2	3	4	5
15	우리 반 학생들은 싸우거나 다투지 않는다.	1	2	3	4	5
16	우리 반 학생들은 우리 학급을 사랑하며, 아낀다.	1	2	3	4	5
17	우리 반 학생들은 서로 따돌리지 않는다.	1	2	3	4	5

18	우리 반 학생들은 학급의 단체 활동이나 조별활동에 즐겁게 참여한다.	1	2	3	4	5
19*	우리 반 학생들은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다.	1	2	3	4	5
20*	우리 반 학생들은 선생님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	1	2	3	4	5
21*	우리 반 학생들은 자기 또래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학생에게는 압력을 가한다.	1	2	3	4	5
22*	우리 반 교실이나 학급비품은 잘 정돈되어 있지 않다.	1	2	3	4	5
23*	우리 반 학생들은 학급의 일을 의논할 때 자기 의견만 내세운다.	1	2	3	4	5

8. 친구관계에 대해 여러분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것에 √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1	2	3	4	5
2*	친구들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하고 말한다.	1	2	3	4	5
3	나는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해 만족한다.	1	2	3	4	5
4*	나는 친구들과 의견이 다를 때, 말다툼을 하거나 싸운다.	1	2	3	4	5
5	친구들은 나를 좋아하고 잘 따른다.	1	2	3	4	5
6*	친구들은 내가 말할 때 비웃는다.	1	2	3	4	5
7*	내가 친구들 말에 따르지 않으면 친구들은 나에게 화를 낸다.	1	2	3	4	5
8	친구들은 속상하고 힘들 때 나에게 와서 털어놓는다.	1	2	3	4	5
9	나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관계가 지속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1	2	3	4	5
10	친구들은 내가 곤란한 일을 겪을 때 나를 보호하고 지켜준다.	1	2	3	4	5
11*	내가 의견을 제시했을 때 친구들은 나를 무시한다.	1	2	3	4	5

12	나는 친구들과 갈등이 있을 때 대화를 통해 금방 해결한다.	1	2	3	4	5
13	나는 친구들과 생각이 통한다.	1	2	3	4	5
14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친구들은 나를 잘 도와준다.	1	2	3	4	5
15*	나는 나와 다른 부류의 아이들과는 친해질 생각이 없다.	1	2	3	4	5
16*	나는 친구들과 싸우면 화해하지 않는다.	1	2	3	4	5
17	내가 해선 안 될 일을 했을 때 친구들은 나를 꾸짖는다.	1	2	3	4	5
18	나는 친구들이 힘들 때 돌 봐주고 위로한다.	1	2	3	4	5
19*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나보다 친구들의 주장이 더 세다.	1	2	3	4	5
20	나는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재미있게 논다.	1	2	3	4	5
21*	나는 친구들과 자주 싸운다.	1	2	3	4	5
22	내가 힘들 때 친구들은 나를 도와주고 격려해준다.	1	2	3	4	5
23*	나는 친구와 심하게 다투면 절교한다.	1	2	3	4	5
24*	친구들과 무엇을 할지 결정할 때 내가 일방적으로 의견을 낸다.	1	2	3	4	5
25	친구들은 내가 하는 일에 찬성해준다.	1	2	3	4	5
26	친구들은 내가 모르는 상황을 이해하도록 친절히 도와준다.	1	2	3	4	5
27	나는 친구들에게 내 이야기를 잘 한다.	1	2	3	4	5
28*	나는 친구들과 함께 활동할 때 행복하지 않다.	1	2	3	4	5
29*	나는 친구들이 내 뜻과 다르게 행동을 하면 화가 나서 짜증을 낸다.	1	2	3	4	5
30	나는 친구들과 있을 때 재미있고 신난다.	1	2	3	4	5
31*	나는 친구들과 의견이 엇갈리면 내 마음대로 하려고 우긴다.	1	2	3	4	5

5) 여러분은 한 달에 용돈을 대략 얼마나 씩니까?
 (괄호 안에 숫자로 직접 기입하고 해당 금액 범위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균 월 용돈 수준 약 () 원	① 1만원 미만	
	② 1만 원 이상 ~ 3만 원 미만	
	③ 3만 원 이상 ~ 5만 원 미만	
	④ 5만 원 이상 ~ 7만 원 미만	
	⑤ 7만 원 이상 ~ 10만 원 미만	
	⑥ 10만 원 이상	

6) 여러분 가정의 한달소득은 얼마입니까?
 (괄호 안에 숫자를 직접 기입하고 해당 금액 범위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균 월 가계소득 약 (원)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 원 이상 ~ 200만원 미만	
	③ 200만 원 이상 ~ 300만원 미만	
	④ 300만 원 이상 ~ 400만원 미만	
	⑤ 400만 원 이상 ~ 500만원 미만	
	⑥ 500만 원 이상	

7) 여러분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7) 여러분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어렵다.	
	② 어려운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부유한 편이다.	
	⑤ 아주 부유하다.	

10)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는?

- ①남, 여 공학교등학교 ②남자 고등학교 ③여자 고등학교 ④중학교

11)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는?

- ①일반고등학교 ②특성화고등학교 ③특수목적고등학교 ④자율고등학교

12) 현재 몇 학년에 재학 중입니까?

- ①1학년 ②2학년 ③3학년

13) 여러분의 학교 성적은 어느 정도 입니까?	① 상위 (전교 석차 20% 미만)	
	② 중 상위(전교 석차 20%이상~40%미만)	
	③ 중위 (전교 석차 40%이상~60%미만)	
	④ 중하위(전교 석차 60%이상~80%미만)	
	⑤ 하위 (전교 석차 80%이상)	

ABSTRACT

Exploring Factors Influencing 'Grit' by Ecological Approach

-Focusing on organism, home and learning environment-

Duckworth(2017) argued that "Most successful people in the U.S. society did not have special talents or intelligence (IQ), but that they only had a high level of Grit."

Under the premise of the ecological system of human development theory which was proposed by Bronfenbrenner and which says that human beings develop and grow by interacting with the environment, grit which is recognized as more important than talents or intelligence is the main topic of this study. In particular, it is designed to find out the correlation between grit and the following personality 5 factors: neuroticism, extroversion, openness, agreeableness and conscientiousness (factors affecting organisms' change in the environment),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economic factors in the home, cultural factors, parents' upbringing attitudes, learning environment at school and quality of peer relationships. The study was conducted with adolescents who are going through tumultuous periods in their lives.

Therefore, in order to deduct the following study issues, 600 first school year students in their high schools in Ulsan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were given questionnaires to which they were instructed to respond to self-reporting surveys using the Likert scale.

First, how do neuroticism, extroversion, openness, agreeableness and conscientiousness (the personality 5 factors as organisms' environmental variables) affect the grit of adolescents?

Second, how do parent-child relationship, economic factors, family culture and parent-child attitude (variables in the family environment) affect teenagers' grit?

Third, how do school climate, classroom climate and the quality of peer relationships (variables in the learning environment) affect the grit of adolescents?

The self-reporting questionnaire, conducted from March 2018, identified the frequency and percentage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according to technical statistics from SPSS WIN 21.0. Next, a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confirm the correlation of major variables and the Cronbach's a value was calculated to measure the reliability of each factor. In addition, in order to see the grit differences in the gender (male or female), monthly income of parents and parents' schooling, a T test, an F test and one-way ANOVA was conducted. Furthermore, in order to see how the organisms' environmental factors, family environment variables and learning environment variables affect the growth of grit,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draw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among the character variables in the organisms' environment, conscientiousness has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grit of adolescents and neuroticism has a negative correlation with it.

Second, the subcomponents of family environment variables - parent-child relationship, economic factors in the home, cultural factors, parents' upbringing attitudes - have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grit of adolescents. Especially,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parents' upbringing attitudes are important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grit.

Third, the subcomponents of the learning environment variables – school climate, classroom climate and the quality of peer relationships – have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grit. Autonomous and instructive school climate and high autonomy and agreeableness help develop grit.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 that for young adults in diverse and dynamic ecological systems their ecological conditions where they belong may affect the growth of their grit, which can be interpreted as continuous interest in their long-term goals, enthusiasm, inflexible determination, perseverance, etc. In addition, whereas most prior studies on grit carried out so far have been limited to independent and mediated variable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stablished grit as a dependent variable in the diverse system environment from the viewpoint of the ecological system theory and sought to find out the correlation.

Key words: ecological system theory, grit, personality 5 factors, home environment, peer relationship, learning environment